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설명서

에셋플러스 일반 사모 투자신탁 제15호

2025.07.

미래성장의 꿈을 담은 액티브 펀드의 명가

ASSETPLUS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투자 위험 고지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 지지 아니합니다.

본 사모펀드의 2종 수익증권은
투자 원금 전액을 손실 볼 수 있는 위험 상품입니다.

투자자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투자광고·홍보 자료가 아니며, 사모펀드의 특성과 위험을 정확히 알려 투자자의 현명한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실적이 변동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설명자료 내용 중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술된 운용성과는 과거의 운용실적입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이 설명자료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이 설명자료에 기재된 운용전략,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은 금융시장 상황, 당사의 운용철학, 담당 매니저의 투자판단 등의 변동에 따라 신탁계약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공시 절차 없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모델포트폴리오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상품의 손익구조와 위험요소를 충분히 인지하신 후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난도 펀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설명자료에 포함된 예측자료는 단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 또는 인용되었고 이 설명자료의 예측에 따른 누구의 어떠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도 당사는 직·간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 투자설명서는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 분쟁발생 시 당사 준법감시인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표번호: 02-3490-9851). 또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NDEX

Part 1. 펀드 개요

Part 2. 펀드 투자대상 및 운용전략

Part 3. 위험 고지

Part 4. 운용사 소개

펀드 기본 정보

펀드명	에셋플러스 일반 사모 투자신탁 제15호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고난도 펀드	미해당
펀드 종류	투자신탁,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폐쇄형) , 단위형, 손익차등형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펀드코드	
가입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투자자 3억원 이상 개인/법인, 그 밖의 단체 1억원 이상 전문투자자
최소투자금액	금 3억원 (₩ 300,000,000, 1종 수익증권 기준)
신탁계약기간	설정일로부터 2년
조기상환 옵션	운용펀드 기준 30%, 연환산 수익률 50% 모두 충족시 조기상환
레버리지 한도	200%
환해지 여부	환대출
펀드설정일(예정)	2025년 7월 31일
환매여부	폐쇄형 투자신탁으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음
판매수수료	선취 1.5% 이내
보수체계	총 연 1.451% (운용 1.00%, 판매 0.4%, 수탁 0.03%, 사무 0.021%)

매입방법	수익증권 매입 시 기준가격 1,000원 적용
펀드 관련 담당회사	운용회사: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판매회사: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수탁회사: 한국씨티은행 / 사무관리회사: 신한펀드파트너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개인, 일반법인: 소득의 15.4% (지방소득세 포함)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수익 중 과세대상 수익은 신탁기간 종료일, 이익분배금 지급일에 원천징수함. *향후 과세당국의 정책, 조세제도 변경 및 수익자의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손익차등형 투자신탁으로 종별 수익증권 차등분배평가 손익조정금액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아 실제 차등하여 지급받는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합니다.
결산 및 이익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기간: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 이익분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분배 가능한 이익금은 회계기간 종료일 다음 영업일에 수익증권으로 분배(재투자) 종류 수익증권(1종, 2종, 3종)에 따른 차등 분배 단 법 제238조에 따른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매매이익,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분배의 유보를 결정하는 경우는 유보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손익의 분배 및 순위를 달리하는 손익차등형 투자신탁이므로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이 수익증권(1종/2종/3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손익 차등형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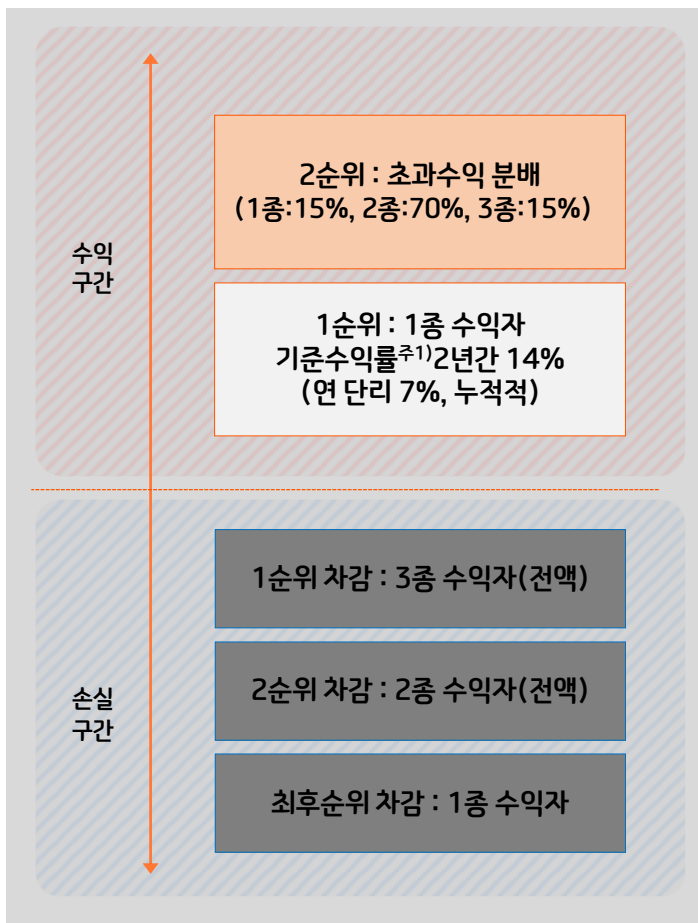
종류 수익증권		1종 수익증권	2종 수익증권	3종 수익증권
납입금액		모집금액	1종 수익증권 모집금액의 약 15% (단, 3종 수익증권은 에셋플러스자산운용 고유자금 1억원)	
손익의 분배 및 순위	1종 기준수익률	2년 간 14%(연 단리 7%, 누적적)	-	-
	초과수익 분배	초과수익의 15%	초과수익의 70%	초과수익의 15%
	손실분배 순위	최후순위 차감 (2종 & 3종 수익증권 납입액 초과분)	2순위 차감 (2종 수익증권 납입액 전액)	1순위 차감 (3종 수익증권 납입액 전액)

- 이익분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분배 가능한 이익금은 회계기간 종료일 다음 영업일에 수익증권으로 분배(재투자)
- 순 수익(또는 손실) 발생 시 종류 수익증권(1종, 2종, 3종)에 따른 수익(또는 손실) 차등 분배
- 단, 법 제238조에 따른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매매이익,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분배의 유보를 결정하는 경우는 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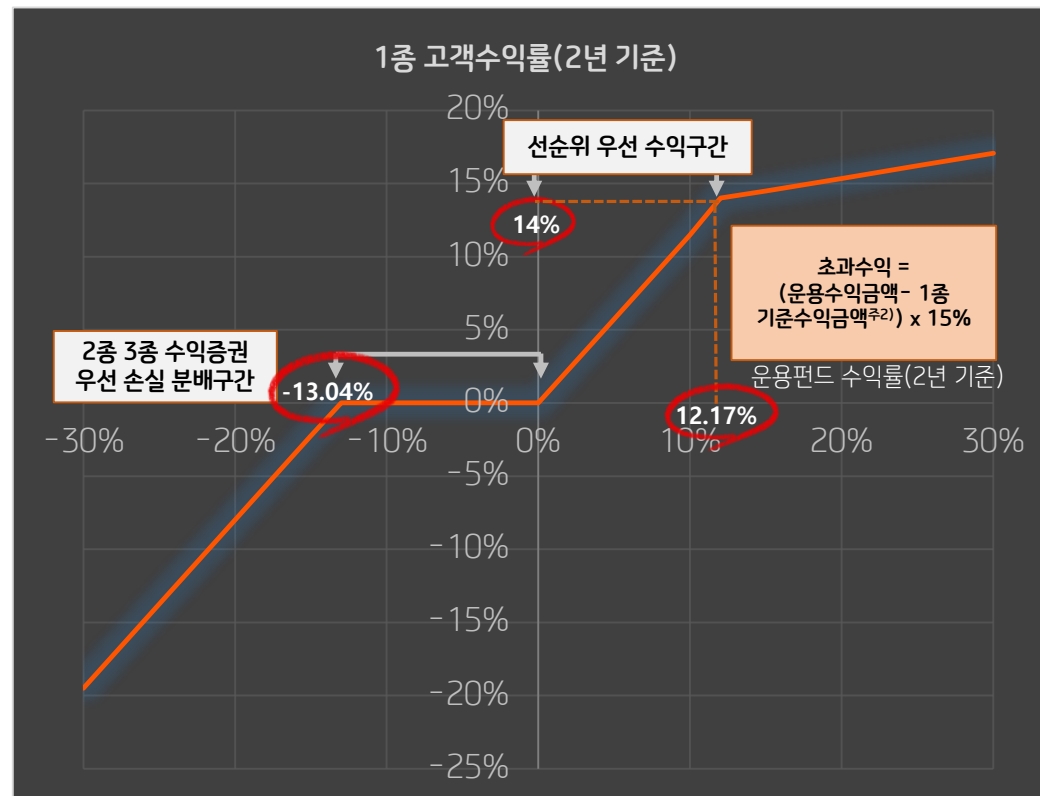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한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손익의 분배 및 순위를 달리하는 손익차등형 투자신탁이므로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이 수익증권(1종/2종/3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손익구조



수익률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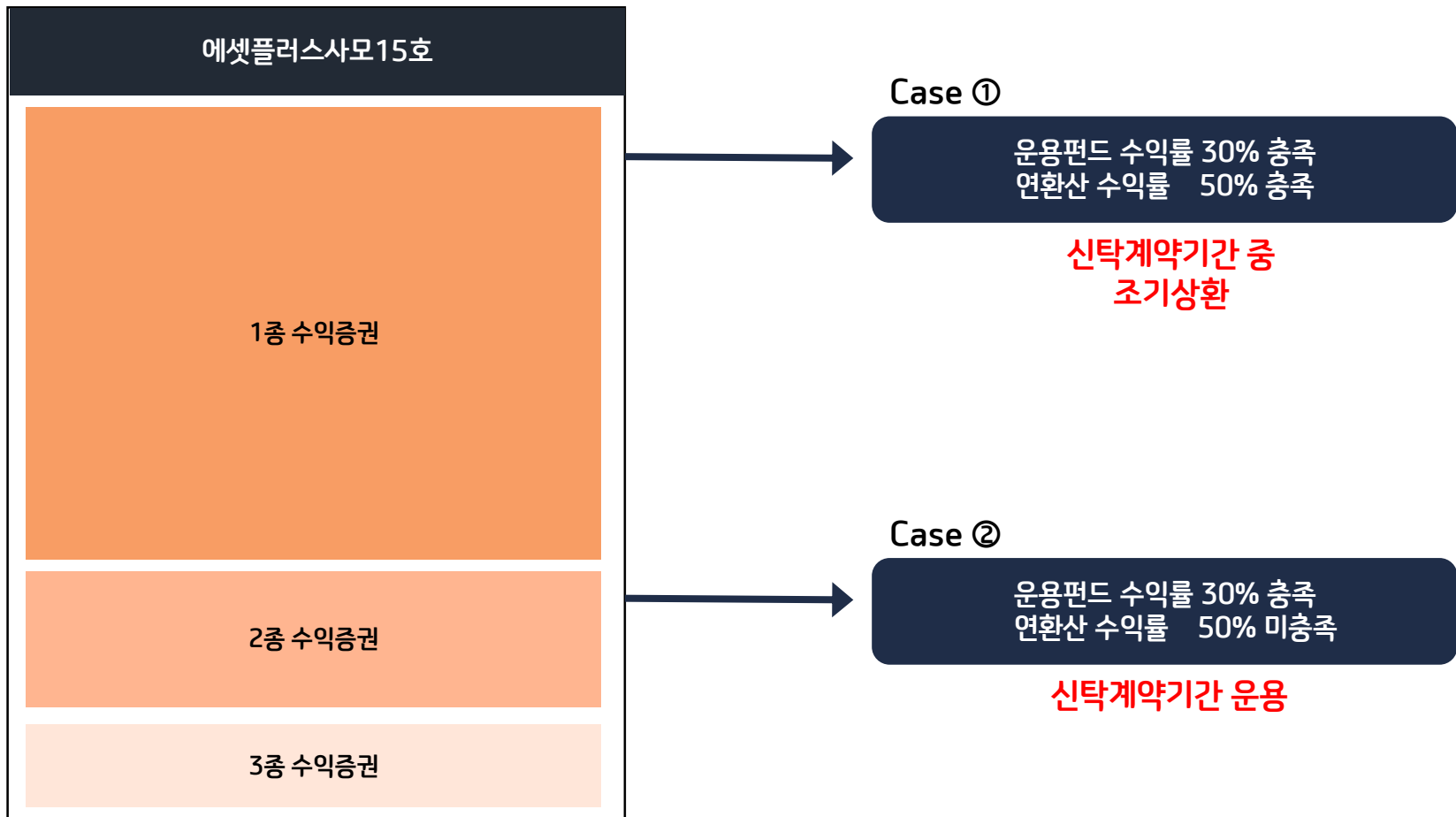


주1) 기준수익률: 1종 수익증권 수익률

주2) 1종 기준수익금액: 1종 수익증권 원금 X 14%

* 상기 그래프 예시는 1종 투자자 기준, 만기시 손익분배를 표시하였으며, 2종 및 3종 투자자의 손익분배는 상이함

조기상환 예시



- ※ 조기상환 조건 충족 시 상환을 위해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조기상환 조건 도달 시점 대비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 조기상환 충족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한 날 해지 합니다.

수익률 유형별 투자 시뮬레이션

(단위: %)

운용펀드 (1종+2종+3종) 만기 수익률	-20.0%	-13.04%	-10%	0%	5%	12.17%	15%	20%	30%
1종 수익증권 수익률	-8.0	-	-	-	5.8	14.0	14.5	15.4	17.1
2종 수익증권 수익률	-100.0	-100.0	-75.0	-	-	-	16.3	45.0	102.5
3종 수익증권 수익률	-100.0	-100.0	-100.0	-	-	-	48.8	135.0	307.5
비고	· 운용펀드 만기 수익률: 12.17% → 1종 수익증권 투자자의 (세전) 운용수익률 14%이며 전액 1종 수익증권 수익으로 귀속 · 운용펀드 만기 수익률: 12.17% 초과 → 초과수익금액은 1종/2종/3종 각 수익자별 수익 차등 분배 · 운용펀드 만기 수익률: -13.04% → 1종 수익증권 투자자의 손실 발생 시작 구간								

[1종 수익증권 투자자 기준 장/단점]

장점: 손실 발생시 2종/3종 수익증권의 투자원본액을 한도로 우선차감 받는 구간까지 1종 수익증권은 투자원본액 유지.

단점: 일정한 수익을 초과하는 수익은 2종/3종 수익증권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초과수익을 수취(단, 수익 발생시 기준 수익(만기2년기준 14%)까지는 1종 수익자 전액 분배)

* 상기 수익률은 펀드 만기시점(2년) 누적 수익률을 기준

* 전체 수익증권 투자금액 115억 가정 1종 수익증권모집액 100억원 1종외 수익증권 15억원(2종 14억 + 3종 1억원)

* 상기 수익률은 제비용(세금, 수수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익률이므로, 고객 최종 수익률은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

* 상기 수익률은 선취판매수수료를 차감전 투자원본액 기준으로 계산

최종 만기수익률 구간별 투자 시뮬레이션

[1종 수익증권 투자원금 100억원(가정), 수익 Case]

(단위: 백만원, %)

운용 수익증권(1종+2종+3종=115억원) 수익률			2년간 10% 수익	2년간 20% 수익	2년간 30% 수익	2년간 40% 수익
1종 (100억원)	수익증권 투자자	기준수익 금액 ^{주1)}	1,150	1,400	1,400	1,400
		초과수익 금액 ^{주2)} (투자자 수취분)	-	135	307.5	480
		고객 순자산 금액	11,150	11,535	11,707.5	11,880
		고객 실질수익률	11.5%	15.4%	17.1%	18.8%
2종 (14억원)	수익증권 투자자	순자산 금액	1,400	2,030	2,835	3,640
		실질수익률	-	45.0%	102.5%	160.0%
3종 (1억원)	수익증권 투자자	순자산 금액	100	235	407.5	580
		실질수익률	-	135%	307.5%	480.0%

[1종 수익증권 투자원금 100억원(가정), 손실 Case]

(단위: 백만원, %)

운용 수익증권(1종+2종+3종=115억원) 수익률			2년간 10% 손실	2년간 13.04% 손실	2년간 15% 손실	2년간 20% 손실
1종	수익증권 투자자	고객 순자산 금액	10,000	10,000	9,775	9,200
		고객 실질수익률	0.0%	0.0%	-2.25%	-8.0%
2종	수익증권 투자자	순자산 금액	350	-	-	-
		실질수익률	-75.0%	-100.0%	-100.0%	-100.0%
3종	수익증권 투자자	순자산 금액	-	-	-	-
		실질수익률	-100.00%	-100.0%	-100.0%	-100.0%

주1) 기준수익 금액: 1종 수익증권 모집액 * 연단리7%(누적적) * 만기(2년) ※ 만기2년기준 14%

주2) 초과수익 금액: 기준수익 금액을 초과한 수익

* 전체 수익증권 투자금액 115억 (1종 수익증권: 100억원 / 1종 수익증권 외: 15억원(2종 수익증권 14억 + 3종 수익증권 1억원 가정))

* 상기 수익률은 제비용(세금, 수수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익률이므로, 고객 최종 수익률은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투자전략 실행 이외의 여유자금은 예금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 산정 방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과 충실의무, 평가의 일관성 유지 등을 준수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총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5항에 따라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집합투자규약 제41조 제3항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주된 투자대상자산, 투자전략 및 운용제한(금전차입 등을 포함) 등의 변경
5.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6.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위 사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변경에 이의가 있는 수익자는 개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으로 지급 받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성과보수와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재투자)
-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0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계약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 구조 및 전략

Investment Target

- 상장주식(국내주식 70% 이상, 해외주식 최대 30% 투자), 공모주 등

Target Return

- 신탁계약기간(2년 간) 목표수익률 20%(IRR 기준)

진화하는 산업 집중 투자 전략

- 업종(종목) 집중 전략 구사를 통해 타 벤치마크 펀드들과의 차별성 유지 (업종 선별 및 집중 전략)

Value Up Program 적극적 대응

-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선정한 Value Up Standard에 부합하는 기업들 적극 편입.
- 미래 기업환경 및 성장하는 산업에 노출된 기업들 중 순자산가치(PBR) 0.8x 미만에 거래되는 기업
- 낮은 PBR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시장 평균 이상의 ROE를 내는 기업에 주목
-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가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에 주목 (Net Cash 우량 기업 선호)
- 보유한 자회사의 합산가치 대비하여 저평가된 지주사 적극 편입
- 자사주 소각과 배당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주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분율 보유한 기업에 주목

공모주 청약을 통한 알파수익 추구

- 상장사 밸류에이션과의 비교를 진행하고 공모주(IPO) 청약을 통해서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 적극 투자
- NAV의 최대 20%까지 공모주 청약 비율을 활용하여 배정 비중 최대화 진행 예정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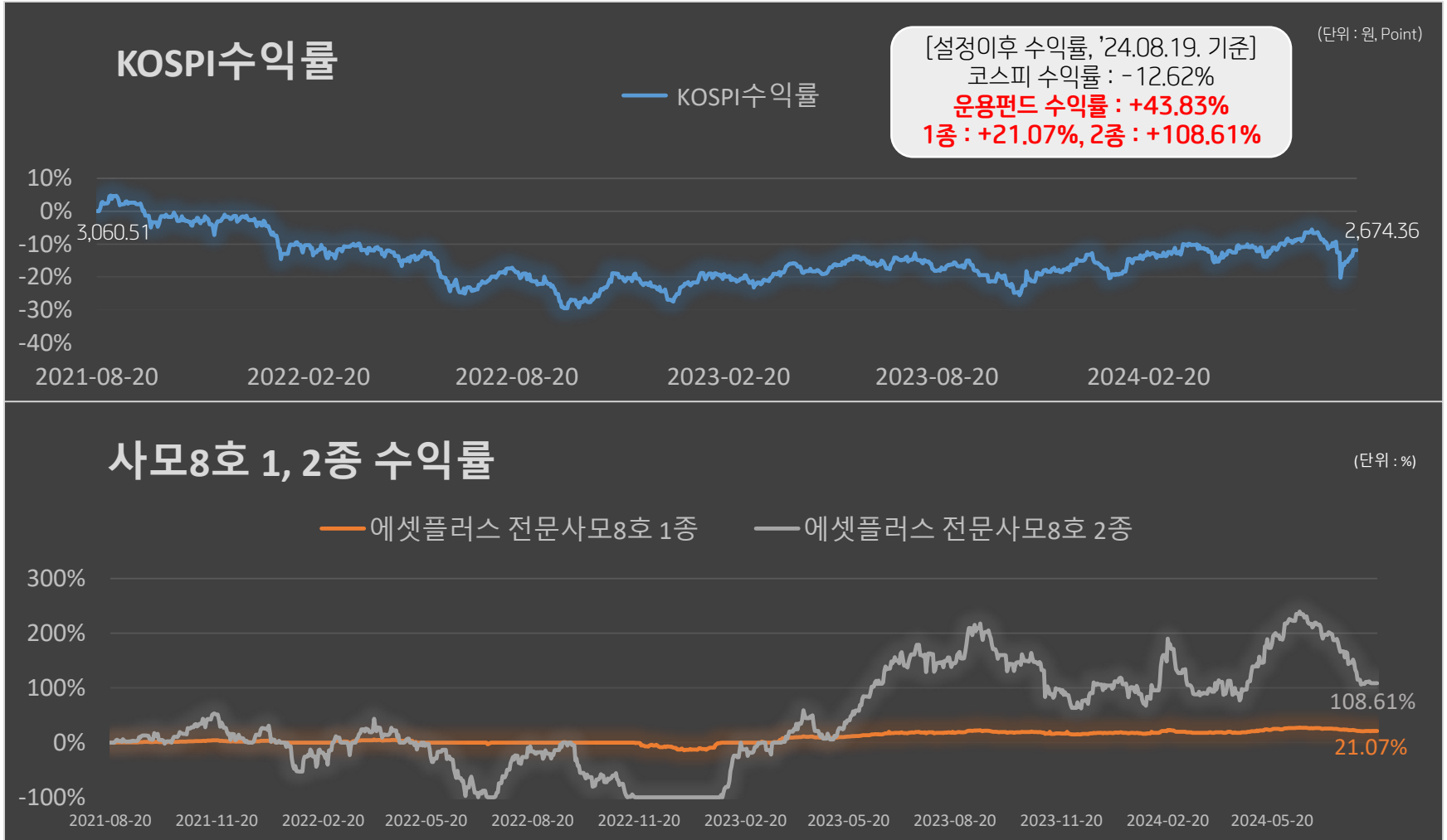
- 롱-숏 전략 : NAV의 50%수준까지 숏 전략 추구 (Total Exposure Max 150% / 단, 실질 TEM은 130% 수준 관리 예정)
- 개별 종목 편입에 대한 제한이 없어 집중 투자전략 추구 예정
- 해외주식 편입 : 글로벌 선도 기업 편입을 통한 안정성 확보

회사 고유자산 투자진행

- 회사 고유자산으로 사모펀드 투자 진행하면서 주인의식 도모

운용 경험 (동일전략 사모펀드)

(기준일자: 2024.08.19. 세전)



* 출처: 신한펀드파트너스/ 설정일: 2021.8.20./ 설정당시 KOSPI 지수: 3,06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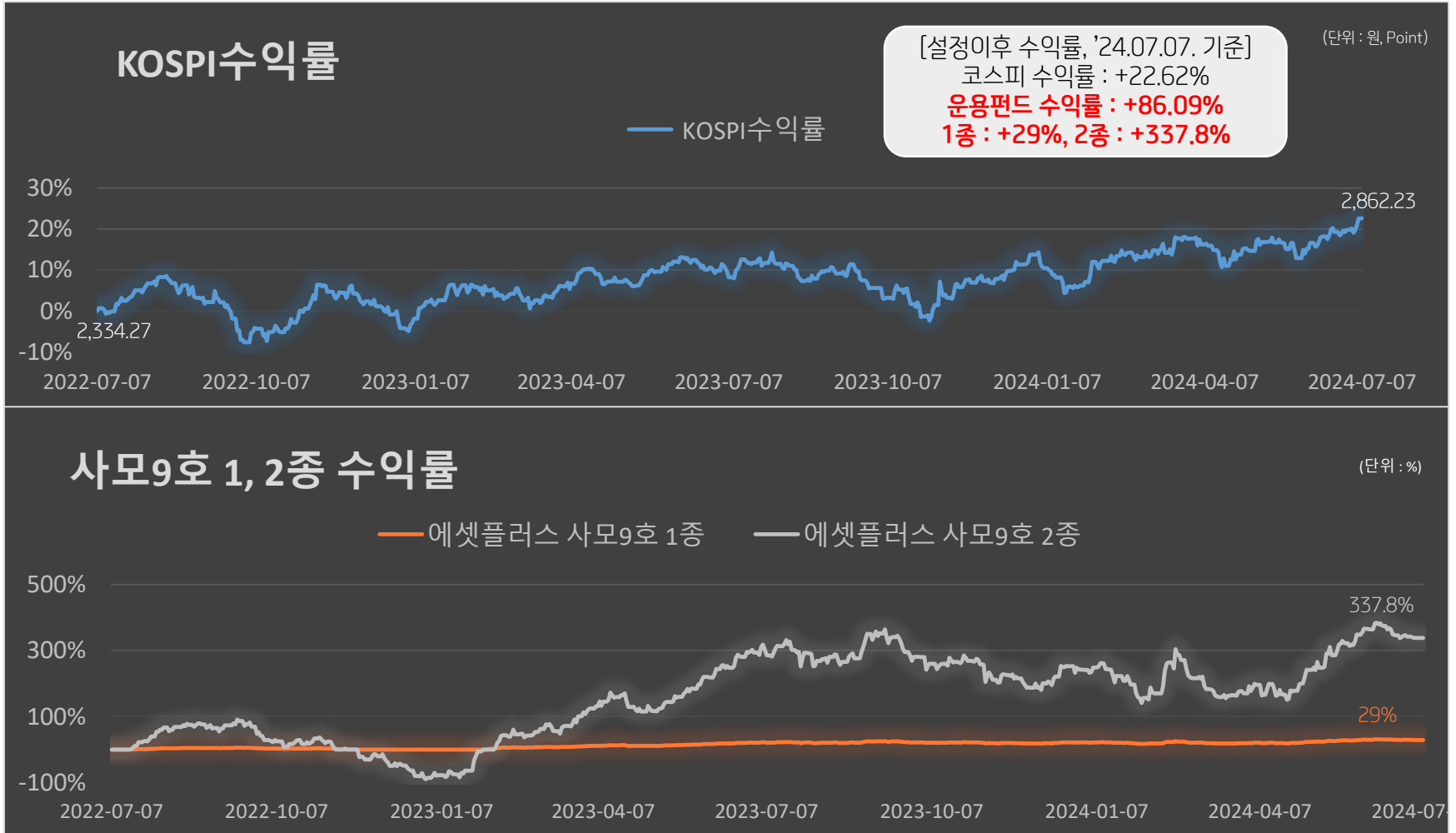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수익률은 제비용(세금, 수수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익률이므로, 고객 최종 수익률은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

* 상기 수익률은 선취판매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투자원본액 기준

운용 경험 (동일전략 사모펀드)

(기준일자: 2024.07.07. 세전)



* 출처: 신한펀드파트너스/ 설정일: 2022.7.7./ 설정 당시 KOSPI 지수: 2,33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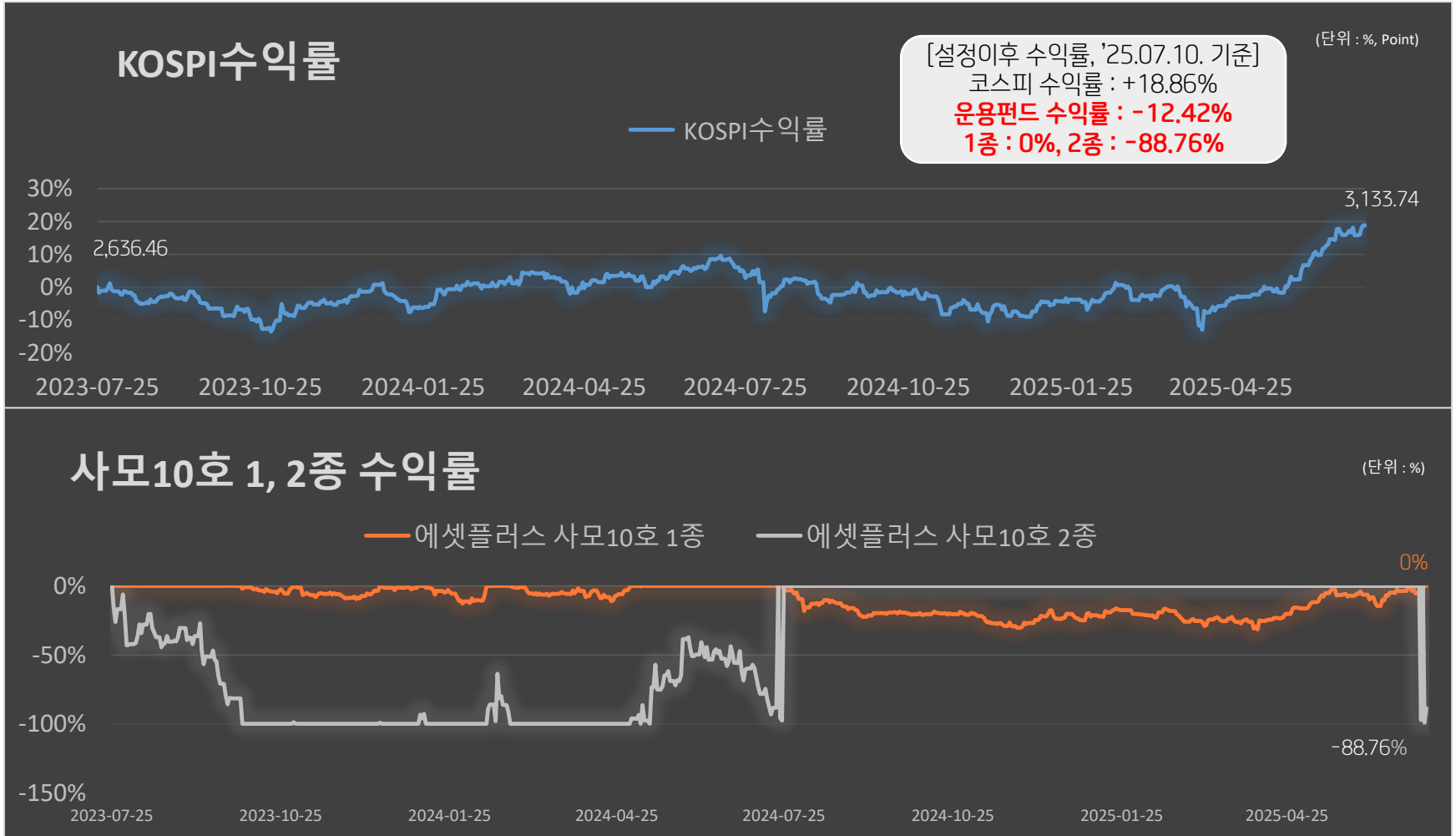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수익률은 제비용(세금, 수수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익률이므로, 고객 최종 수익률은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

* 상기 수익률은 선취판매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투자원본액 기준

운용 경험 (동일전략 사모펀드)

(기준일자: 2025.07.10. 세전)



* 출처: 신한펀드파트너스/ 설정일: 2023.07.25./ 설정 당시 KOSPI 지수: 2,63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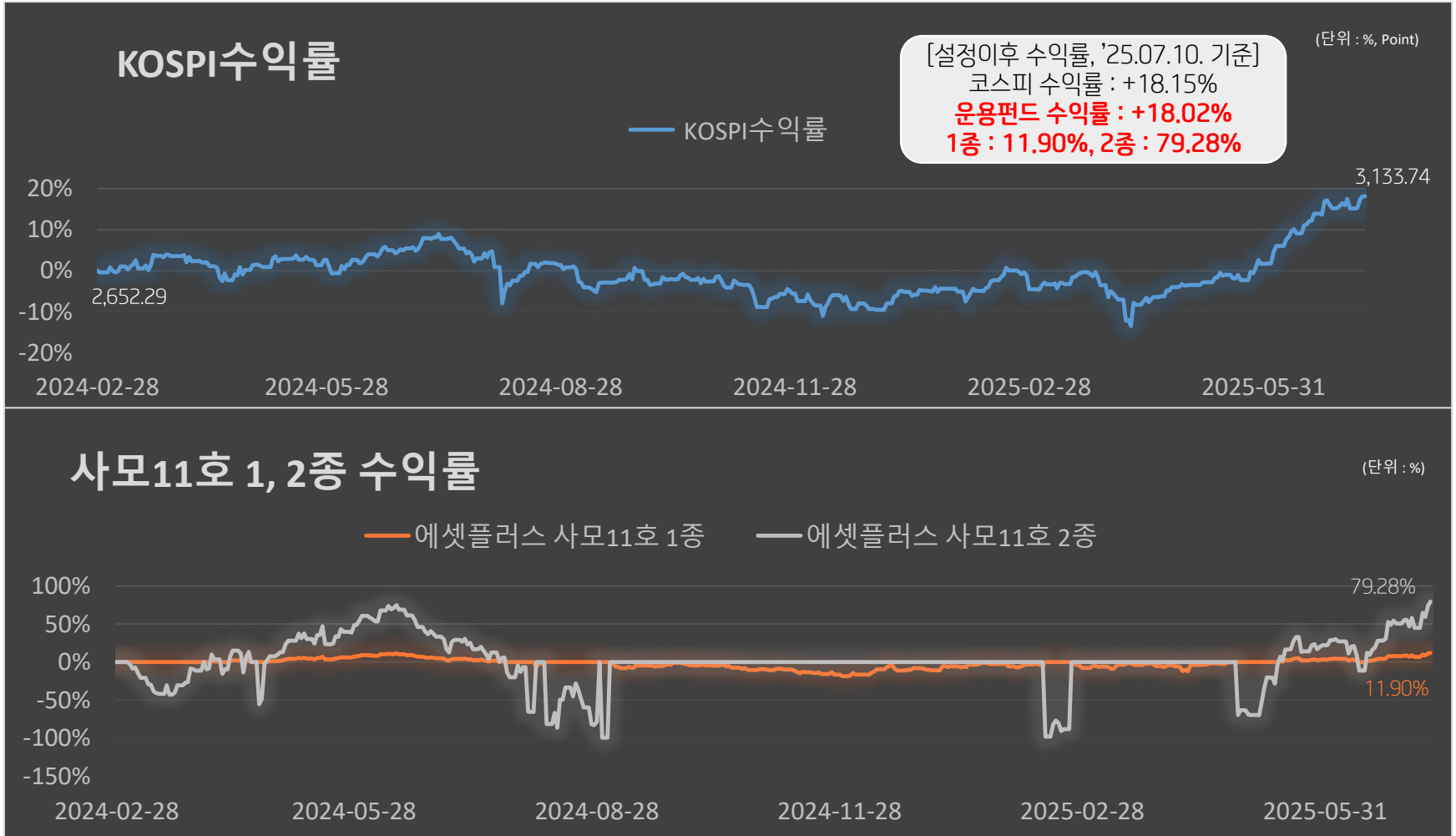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수익률은 제비용(세금, 수수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익률이므로, 고객 최종 수익률은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

* 상기 수익률은 선취판매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투자원본액 기준

운용 경험 (동일전략 사모펀드)

(기준일자: 2025.07.10. 세전)



* 출처: 신한펀드파트너스/ 설정일: 2024.2.28./ 설정 당시 KOSPI 지수: 2,65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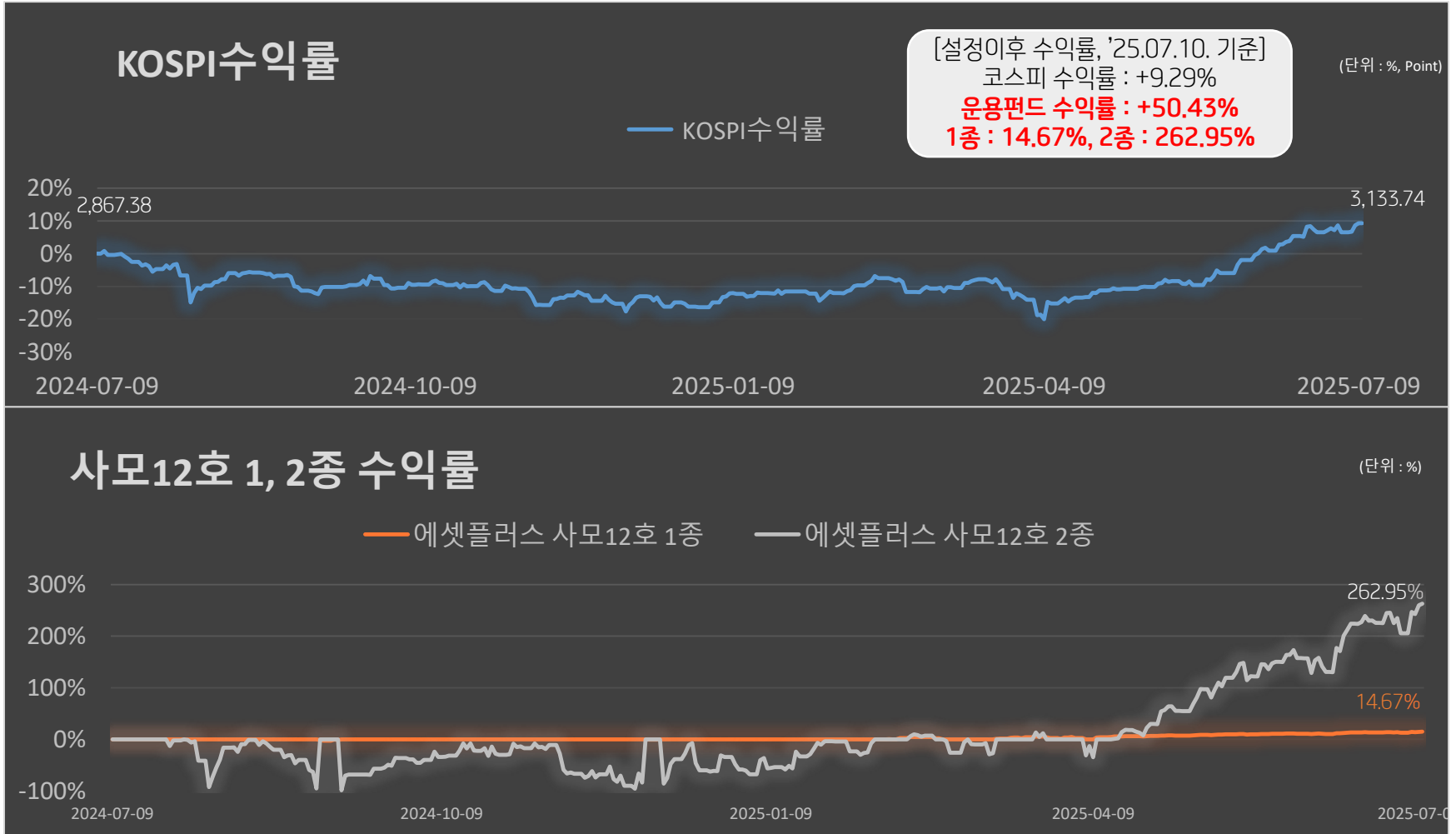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수익률은 제비용(세금, 수수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익률이므로, 고객 최종 수익률은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

* 상기 수익률은 선취판매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투자원본액 기준

운용 경험 (동일전략 사모펀드)

(기준일자: 2025.07.10. 세전)



* 출처: 신한펀드파트너스/ 설정일: 2024.07.09./ 설정 당시 KOSPI 지수: 2,86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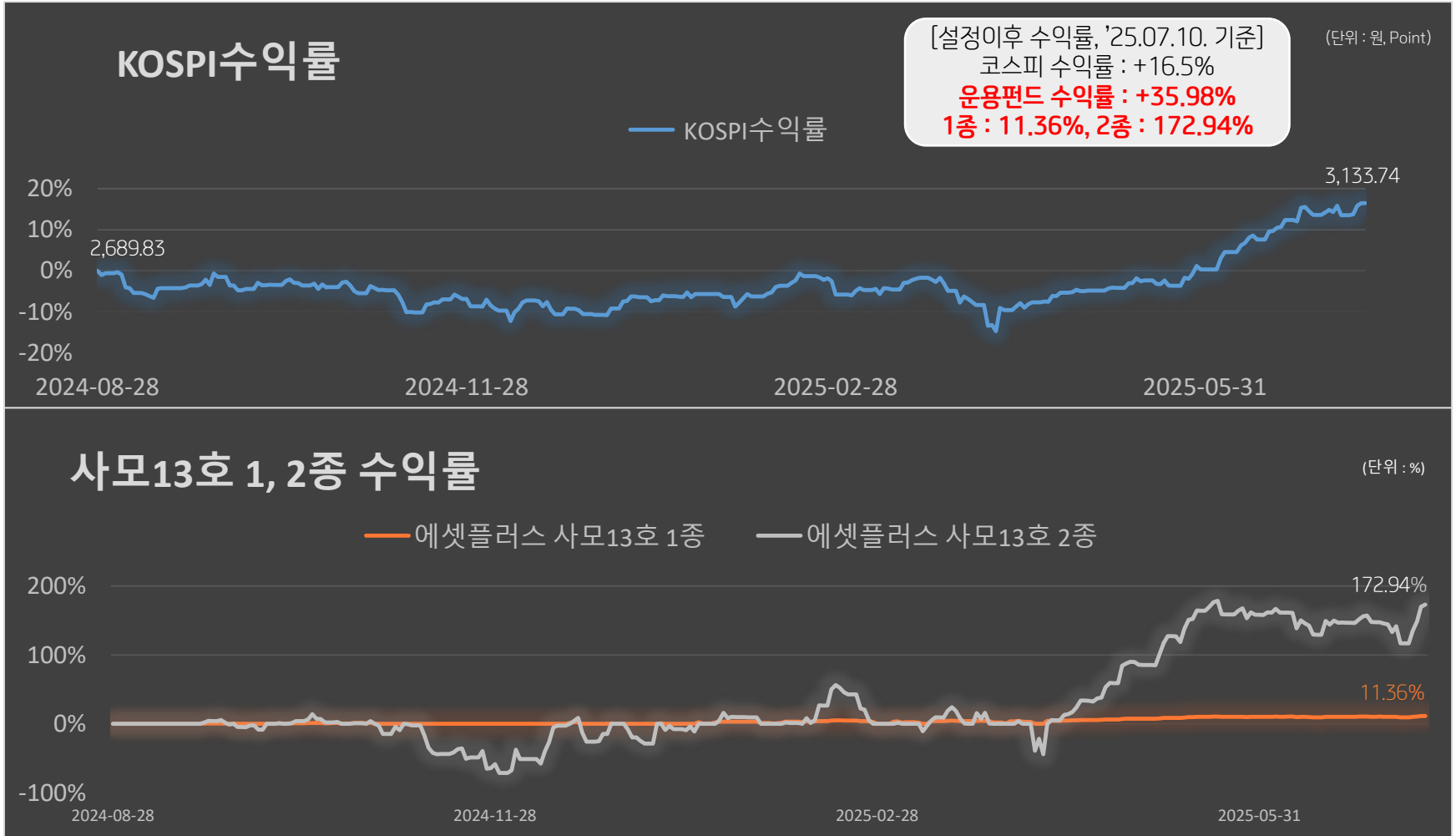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수익률은 제비용(세금, 수수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익률이므로, 고객 최종 수익률은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

* 상기 수익률은 선취판매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투자원본액 기준

운용 경험 (동일전략 사모펀드)

(기준일자: 2025.07.10. 세전)



* 출처: 신한펀드파트너스/ 설정일: 2024.08.28./ 설정 당시 KOSPI 지수: 2,689.83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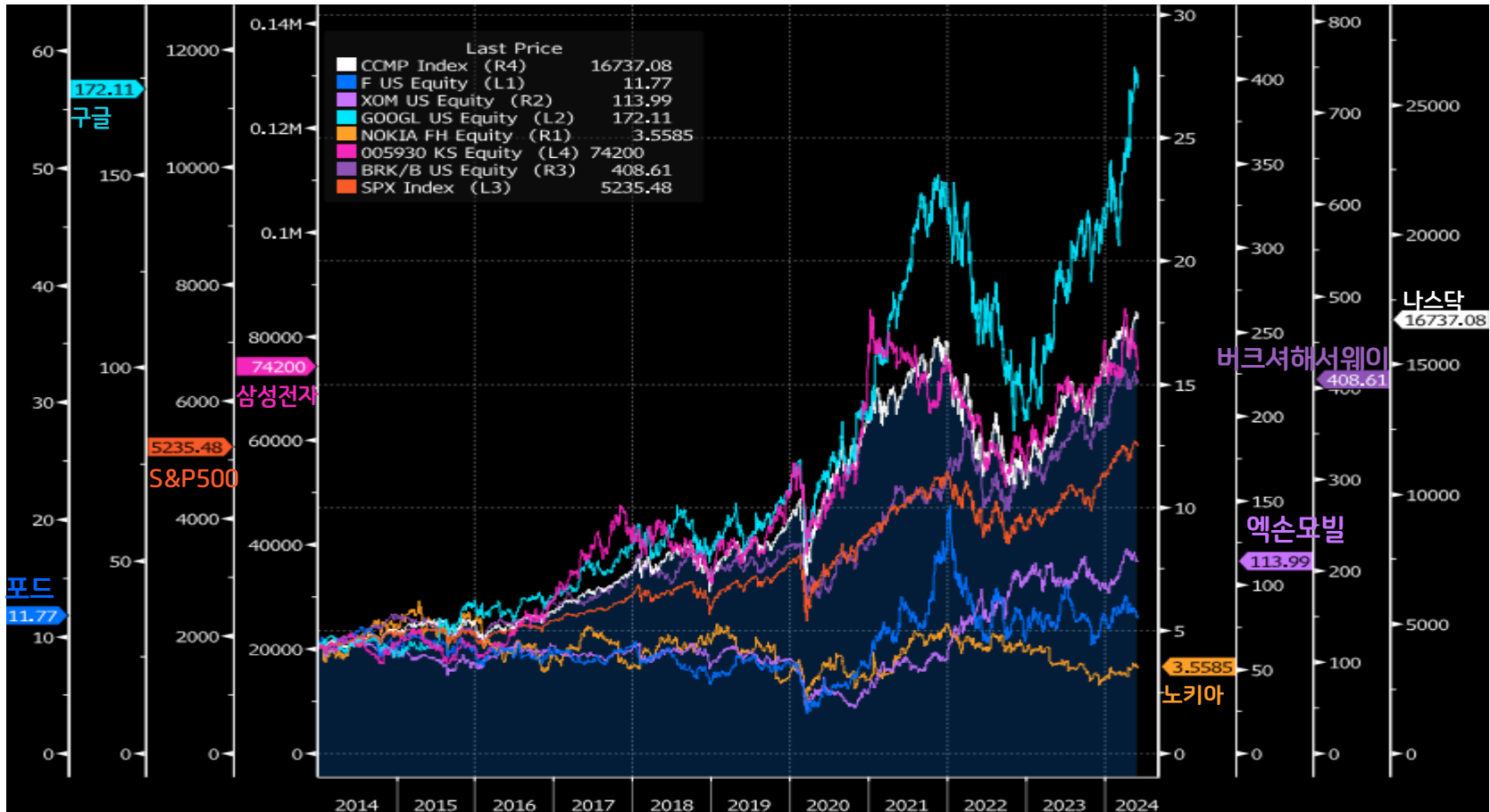
* 상기 수익률은 제비용(세금, 수수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익률이므로, 고객 최종 수익률은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

* 상기 수익률은 선취판매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투자원본액 기준

진화하는 산업과 기업에 투자

모든 기업은 이윤 추구의 강력한 동기를 보유했으며 이윤을 추구하려는 강력한 동기가 세상의 변화와 함께할 때 높은 성장과 진화를 보임.

진화하는 산업과 함께하는 기업은 지수(평균) 이상의 성장을 보임.



기준일자: 2024.05.31, Source: Bloomberg

* 위 자료는 펀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특정 시장이나 종목을 투자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 투자 기업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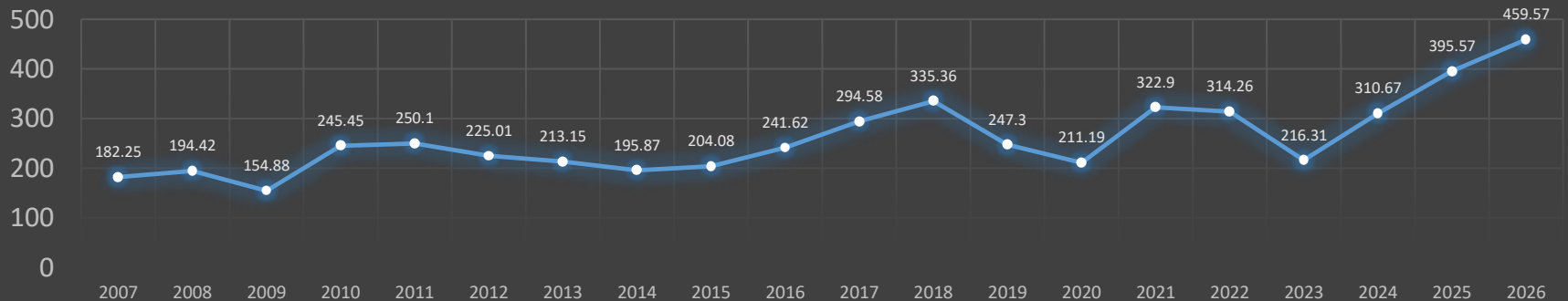
* 자료는 작성시점에서 취득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나, 시장의 환경이나 그 외의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국내 증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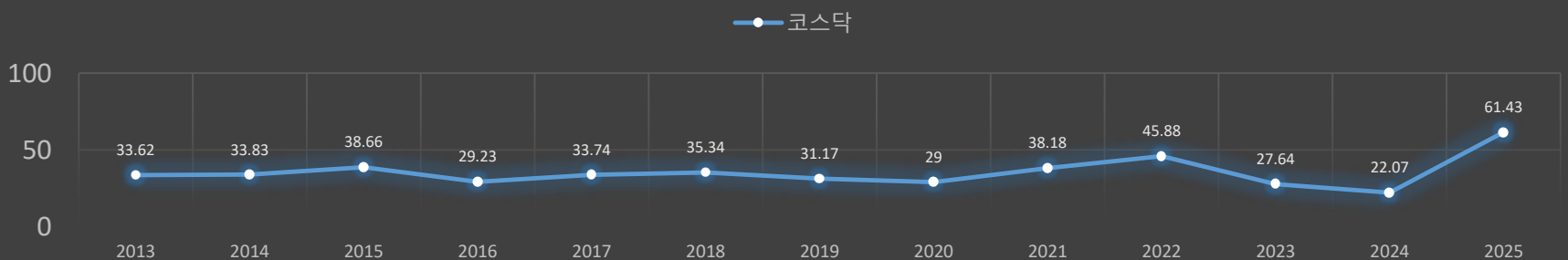
‘주가는 기업 이익과 해당 이익에 부여하는 프리미엄율(PER)의 함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높은 수익력과 이익의 질(PER)을 가진 기업들에 주목.

에셋플러스는 국내 주식시장의 이익의 증가와 이익의 질이 과거대비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KOSPI 영업이익 추이



KOSDAQ 영업이익 추이



기준일자: 2025.06.24, Source: Bloomberg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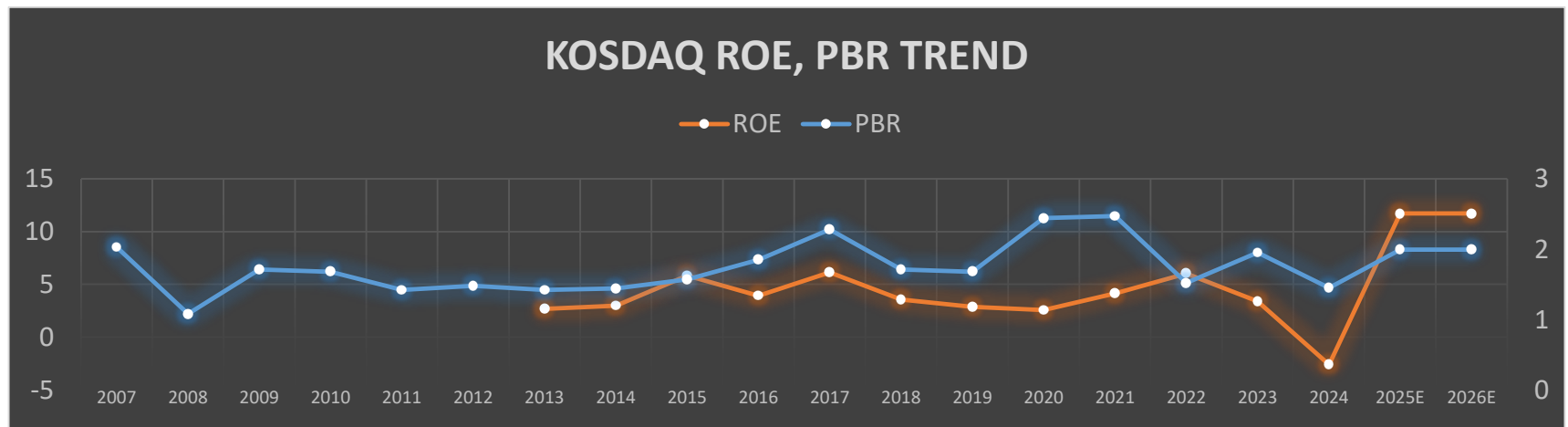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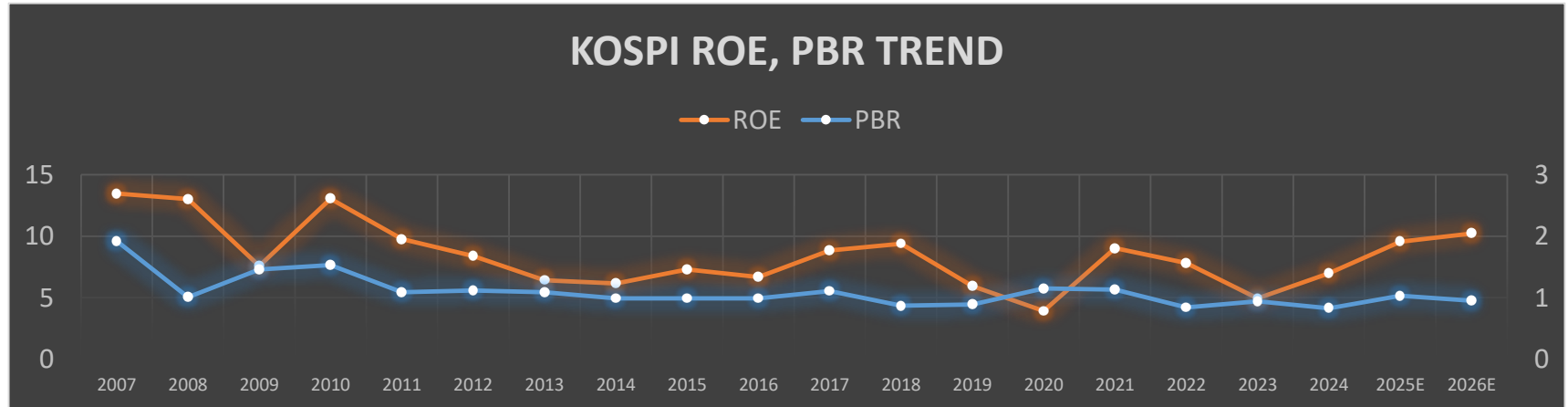
* 위 자료는 펀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특정 시장이나 종목을 투자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 투자 기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료는 작성시점에서 취득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나, 시장의 환경이나 그 외의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국내 증시 (2)

코스피, 코스닥 전체 ROE Trend는 최근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 Band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

정부의 Value Up 프로그램 시행 가능성에 따라 국내 성장하는 섹터 내에서 ROE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 대비 낮은 시가총액 거래 기업 주목



기준일자: 2025.06.24, Source: Bloomberg 단위: ROE(%), P/B(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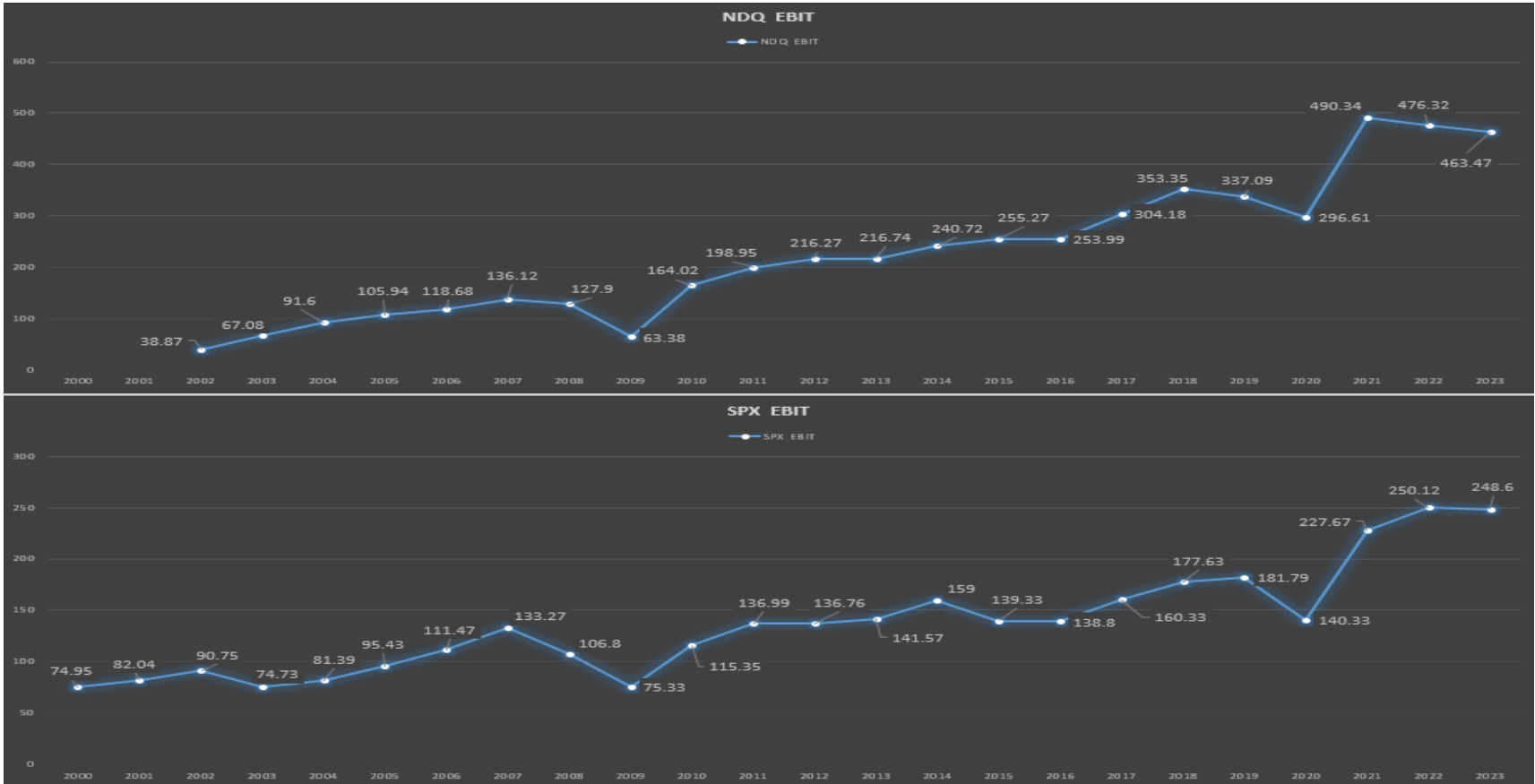
* 위 자료는 펀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특정 시장이나 종목을 투자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 투자 기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료는 작성시점에서 취득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나, 시장의 환경이나 그 외의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미국 증시

‘주가는 기업 이익과 해당 이익에 부여하는 프리미엄(PER)의 함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높은 수익력과 이익의 질(PER)을 가진 기업들에 주목.

여전히 높아지는 미국의 이익 기초 체력. 하반기 금리 인하 사이클에 새로운 서비스 추가되면서 이익 확장 긍정적.



기준일자: 2024.05.31, Source: FnGuide

단위: 조 원

* 위 자료는 펀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특정 시장이나 종목을 투자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 투자 기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료는 작성시점에서 취득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나, 시장의 환경이나 그 외의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 Universe 구성 전략 [Korea]

투자는 기업의 성장 과실을 함께하는 행위이고, 기업은 자본조달을 통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
세상의 변화와 함께하는 기업이 높은 성장과 혁신을 주도하는 만큼 에셋플러스는 아래의 변화에 주목.
이익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주목하고, 정부의 Value Up Program 시행에 따라 내재가치의 정상화 기업들도 주목.

A. AI시장 확대로 수혜 예상되는 반도체 생태계 주목

1. AI시장 확대로 각국의 비메모리 생태계 / 파운드리 생태계 / 선단공정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BM 주목
2. 각국의 반도체 생태계 내재화는 국내 반도체 소부장들에 큰 기회로 여겨짐

B. 재래식무기 생산 경쟁력을 보유한 K-방산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미국 대상 재래식 무기 수출국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대한민국
2. 자주국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가별로 GDP 대비 방산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사이클에 진입

C. K-POP문화의 N2^{주1)} 확장에 주목

1. 전세계 음원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미주와 유럽에서 K-POP문화는 강력한 N2 확장으로 판단
2. IP^{주2)}의 N2 확장은 현재 초기 단계로 리오프닝에 따른 콘서트 매출은 이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D. 미국이 주도할 소비 트렌드에 주목

1. 과거 국내 경기소비재 제품들이 중국을 위주로 성장했다면 앞으로는 미국의 가성비 중심 소비로 전환할 것으로 보임
2.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담 증가에 따른 저가 소비 위주로의 트렌드 변화에 ODM 업체들 주목

E. 성장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중 상대적으로 크게 저평가된 기업에 주목(Value Up Program)

1. 기업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과 낮은 이익의 질(ROE)을 보이는 기업의 순자산가치에 주목
2. 국내 기업 중 이익이 증가하고, PBR이 낮고, ROE는 우상향 모습을 보이며 주주가치 제고에 노력하는 기업을 주목

주1) N1: 제품 / N2: 지역

주2) 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

투자 Universe 구성 전략 [Global]

투자는 기업의 성장을 공유하기 위함이고, 기업은 자본조달을 통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

기업의 성장이 세상의 변화와 함께할 때 높은 성장과 진화를 경험하는 만큼 에셋플러스는 아래의 변화에 주목.

A. AI시장 확대에 따라 수혜 가능한 반도체 생태계 주목

1. AI시장 확대에 따라 빅테크 기업들의 AI사업 수익화를 위한 움직임 본격화.
2. 향후 AI시장 확대에 따라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시장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

B. 자율주행차 시장 확대에 따른 독보적 기업 편입

1. 자율주행차 시장은 향후 Level 3를 넘어 Level 5를 준비중.
2. AI시장 내에서도 자율주행차 시장은 데이터 확보량에 따른 독보적 기업이 시장 주도 전망.

C. 대체 불가능한 고부가 소비재 기업들 편입

1. 앞으로도 고부가소비는 경기 사이클과는 상관없이 꾸준하게 성장 전망.
2.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고부가 소비재 기업들의 편입이 높은 유럽 시장 적극 노출.

D. 각 산업 내에서의 글로벌 1등 기업 편입

1. 전세계적으로 각 산업에 노출된 1등 기업들 편입 가능.
2. 특히,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에서의 편입이 유효.

E. 구조조정 과정에서 살아남은 1등 기업 편입

1. 아시아는 고성장에서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해 저성장 사이클에서 도산한 기업이 많은 상황.
2. 저성장 사이클에서 한계기업이 퇴출하면서 점유율을 오히려 늘려가는 기업들 편입.

사모펀드 15호 핵심투자전략

구축된 투자 Universe 종목군 중 다음 4가지 투자전략과 포인트에 주목합니다.



A. 신·재생 에너지 전력화 시대, 전력망 투자 필요

1. 전력화 시대 확대에 따른 전력 인프라 CAPEX 지속 확대 전망 (AI데이터 센터 등)
2.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 석탄 → 석유 → 수소 (수소에너지 시대 도래에 따라 수혜 보는 업종 주목 필요)
3. 내연기관차 → 친환경자동차 (반도체 산업의 변화에도 주목)



B. 연간 1,000조 원의 방산시장에 주목

1. 연간 방위산업 시장규모는 약 1,000조원의 시장 형성중.
2. 과거 러-우 전쟁 이전 재래식무기의 수출은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
3. 최근 전쟁 이후에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재래식 무기를 한국산 무기로 교체 진행중.



C. 인구구조의 변화에 수혜가 가능한 기업에 주목

1. 노인인구 / 1인 가구 / 모바일인구 / 미국의 소비력.
 -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수혜 가능한 업종에 주목 필요.
 - > K-Food, K-Beauty 등 한국의 정체성이 해외로 확장하는 싸이클에 주목.



D. 대한민국 Value Up Program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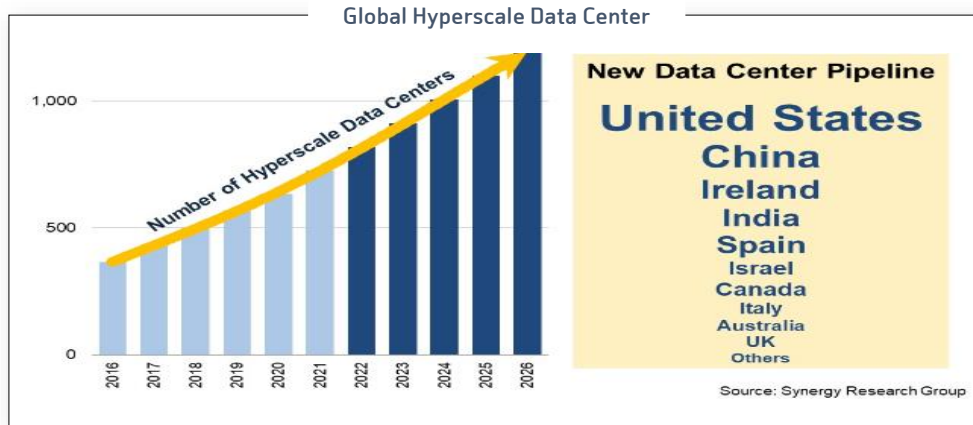
1. Value Up Program 수혜 가능 종목 지속 관찰
 - >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의 기업들중 ROE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저평가(PBR) 기업 주목 필요.
 - > 수익가치와 자산가치가 매력 있으면서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 주목.

전력화 시대, 전력망 투자 필요

전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의 대체 수요 증가 흐름 속에서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 발전소 투자가 본격화 되었음.

최근 생성형 AI의 급속한 대중화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큰 폭 증가가 추정되는 만큼 국내외 전력 인프라 투자는 지속될 전망.

전력화 시대, 전력망 투자 필요



투자포인트

전력망 투자 밸류체인 주목

01.

Global Data Center Market은 2021년 \$220b에서 2030년 \$343b으로 CAGR +5.1%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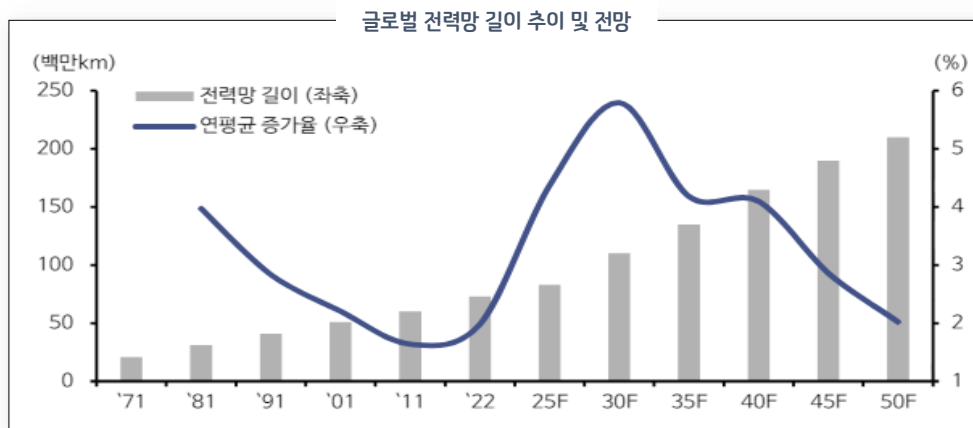
각국 정부는 Digital Economy와 초연결을 위하여 데이터센터 구축 본격화 전망.

02.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력계통 구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며 전선/변압기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 되는 추세.

1981년 글로벌 송배전망 길이는 3,000만km에서 2021년 7,800만km로 길어졌고 향후에도 큰 폭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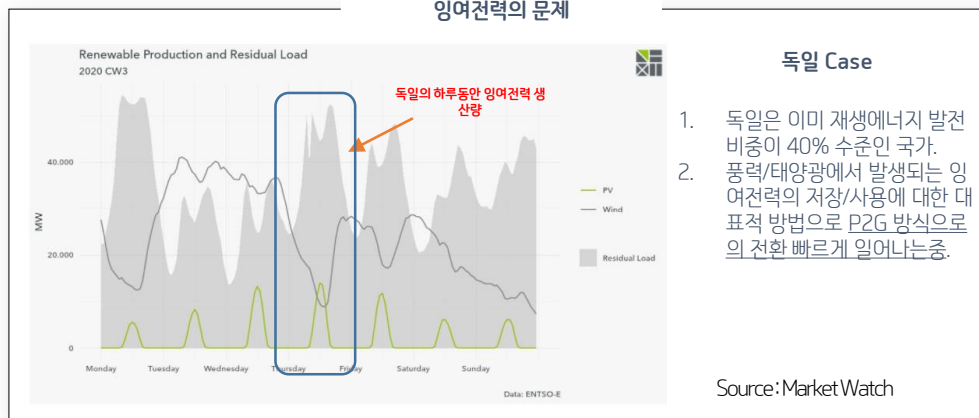
최근 ChatGPT 등 다양한 생성형 AI가 대중화 되면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이 심해질 전망.



전력화 시대, 전력망 투자 필요

전력의 폭발적 생산량은 향후 잉여전력을 어떻게 처리할지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 전력 이동은 전선이나 배터리로 이동이 제한적인 만큼 향후 전기를 물 분해하는 데 활용하여 수소로 전환 후 수출하려는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

잉여 전력의 활용 방안, 수소가 답



잉여전력의 저장방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40%인 독일은 2010년 기준 잉여전력이 150GWh, 2025~2030년에는 연간 잉여전력이 3.5~8.0TWh, 2040~이후에는 40TWh까지 늘어날 전망.

3가지 잉여전력 저장방법

1. 기존 송배전 전력망의 추가 설치
2. 수전해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 방식
3. ESS를 활용한 전기의 저장 방식

투자포인트

잉여전력의 저장필요

01.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잉여전력의 **전기생산의 저장 문제 대두. 향후**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잉여전력 보관 필요성이 커질 전망.

에너지 저장을 위해서 가능성 높은 대안으로 떠오르는 방식은 3가지 :

- 1) 추가적인 송전/배전 CAPEX
- 2) 수전해분해를 통한 수소로의 보관
- 3) ESS를 활용한 전기 저장.

02. **독일 재생에너지 비중 40%로 이미 잉여전력 보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

03. **전세계 확산되는 그린뉴딜**
전력의 이동을 위한 전선 부족 증가, ESS 보급의 한계. 향후 수소를 통한 잉여전력의 **보관 및 저장 대두**

전력화 시대, 전력망 투자 필요

유럽은 2040년 전후로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정책을 발표했으며 향후 일부 대도시 위주로 내연기관차의 진입 금지 법안도 발표한 상황. 대한민국 서울수도 내연기관차 5등급 미만의 차 진입 금지 시행중.

전기자동차 시장의 확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망

		18	19	20F	21F	22F	23F	24F	25F
승용차 시장	미국	17,305	17,576	15,985	16,784	17,288	17,634	17,634	17,634
	유럽	16,217	16,359	14,991	15,591	16,059	16,380	16,400	16,500
	중국	28,081	25,769	25,000	26,000	26,500	27,000	27,500	28,000
	기타	36,282	35,082	35,082	35,783	36,499	37,229	37,973	38,733
	계	97,885	94,786	91,058	94,158	96,346	98,243	99,507	100,867
전기차보급률	미국	2.0%	1.9%	3.4%	5.0%	8.5%	10.7%	13.0%	15.6%
	유럽	2.4%	3.6%	10.0%	16.0%	20.0%	22.0%	25.0%	27.0%
	중국	3.9%	4.1%	5.2%	6.7%	8.1%	10.7%	13.8%	17.3%
	기타	0.6%	0.4%	1.0%	2.0%	5.0%	8.0%	10.0%	12.0%
	계	2.1%	2.2%	4.1%	6.2%	9.0%	11.6%	14.1%	16.6%
전기차판매량 BEV+PHEV	미국	350	332	545	840	1,465	1,886	2,287	2,754
	유럽	386	587	1,499	2,495	3,212	3,604	4,100	4,455
	중국	1,107	1,061	1,312	1,741	2,156	2,885	3,798	4,843
	기타	206	135	351	716	1,825	2,978	3,797	4,648
	계	2,049	2,115	3,707	5,792	8,658	11,353	13,983	16,699

글로벌 전기차 시장

- 2025년 추정되는 전기차 침투율은 16% 수준으로 2020년 4.1% 대비 4배 성장하는 시장으로 거듭날것.
- 최근 중국은 신차 판매에서 EV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50%를 넘는 수준. 향후 전세계 선진국들이 충전소 인프라 구축과 맞물려 EV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전망.

Source: auto electronics

투자포인트

전기차 시장의 확대 (반도체)

01.

유럽 주요 국가들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선언

> 영국 2030년/ 프랑스 2040년/ 중국 2035년 / 캘리포니아 2035년 금지

> 내연기관 신차판매 금지는 전기차 시장 보급 확대로 빠르게 전환될것.

> 이미 중국은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이 50%를 넘어서면서 빠르게 EV화가 진행중.

02.

전기차 시장 확대는 반도체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것. 대당 반도체 탑재는 내연기관 \$457, 하이브리드 \$572, PHEV \$834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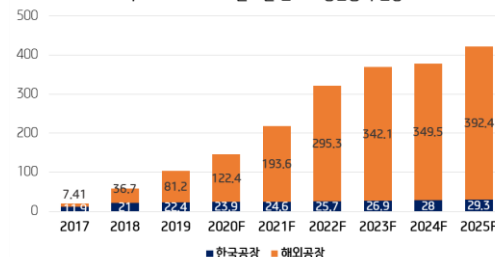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함께 성장 가능한 비메모리 반도체의 내재화는 가속화될 것.

> 전세계 반도체시장규모 700조원 : 메모리 200조원 vs 비메모리 500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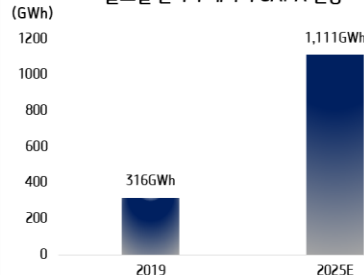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

글로벌 탑 3 배터리 생산업체인 국내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은 지속될 전망으로, 2025년 현재보다 3배 이상의 성장을 보일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배터리 생산능력 또한 3배 이상 성장 추정됨.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 생산능력 전망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CAPA 전망



Source: econovil

1,000조원의 방산 시장에 주목

전세계방산시장 규모는 연간 1,000조원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 전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주요 국가들이 러시아산 재래식 무기 수입을 한국 방산 업체들로 교체하는 움직임이 빠른 상황.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의 기회 요인

빠르게 증가하는 대한민국 방산 수출액

한국 방산 수출 규모 및 세계 방산 수출 증가율

(단위 : 억달러)



*수주 기준, 2022년은 목표치
출처: 방산업체, SPIR 작성, 인베스트코스(www.investcosun.com)

1	미국	14%
2	러시아	-26%
3	프랑스	59%
4	중국	-31%
5	독일	-19%
6	이탈리아	16%
7	영국	-41%
8	한국	177%
9	스페인	10%
10	이스라엘	-5.6%

*2017-2021년 수치로 과거5년(2012-2016년) 대비
*순위는 세계방산시장 수출 점유율순

Source:인베스트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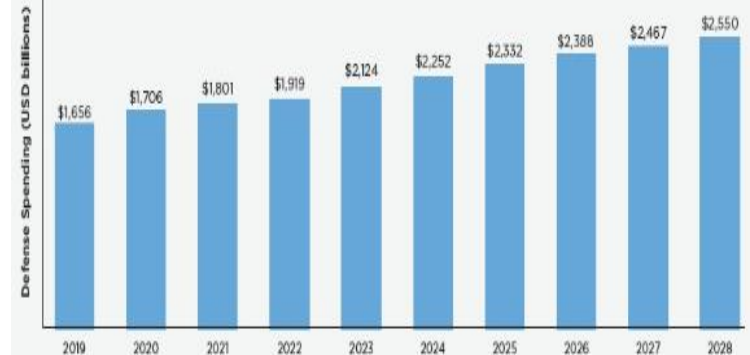
01.

한국 방산 수출 규모

- 한국 방산 수출 규모는 2020년까지 정체를 보이다가 전쟁 이후에 가파른 성장을 보이는 상황.
-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과거 5년 평균치대비 약 +177% 성장하는 모습을 보임.
- 전세계 방산 시장에서 기존 재래식 무기의 점유율이 높았던 중국, 러시아 국가들의 몫을 상당부분 지속 가져올 전망.

전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

Total Global Defense Spending



Source: Forecast International

01.

전세계 국방비 시장 규모는 지속 성장 추세

- 전세계 국방비 시장은 향후에도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러-우 전쟁 이후에 자주국방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
- 특히 최첨단 무기의 생산은 유럽/미국이 주도하나, 재래식무기에 대한 몫은 대한민국/인도가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 전망.
- 재래식 무기에 사용되는 일차전지, 포탄 등의 생산 인프라는 곧바로 만들어지기 어려운만큼 국내 업체들이 진입장벽 확보중.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에 주목

플랫폼이란 ‘생태계 조성자’로서의 역할로 플랫폼의 사전적 의미는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해석이 가능.

오프라인 플랫폼은 강력한 해자(공장규모, 생산성, 규모의경제 효과 등)를 바탕으로 수많은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켜주는 매개체.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플랫폼		아이디어 플랫폼	
특징	네트워크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 확장 가능		‘생산 생태계’ 조성자로서 규모의 경제 효과 극대화		아이디어 가치를 바탕으로 플랫폼 역할	
구분	광고 플랫폼	Facebook, Alphabet 등	제조기반 플랫폼	계약 - CMO ^{주1)}	제품기획 플랫폼	ARM, RNA Platform 등
	공유경제 플랫폼	Airbnb, Uber 등	제조기반 플랫폼	핸드백/의류 : OEM ^{주2)} / ODM ^{주3)}	설계자산 플랫폼	Synopsys, Unity, Adobe
	중개 플랫폼	거래소, Coinbase 등	제조기반 플랫폼	자동차/부품 : OEM/ODM		
			제조기반 플랫폼	시스템반도체 : Foundry		
	유통 플랫폼	Amazon, Square, Sea 등.	제조기반 플랫폼	식품 : OEM		

주1) CMO :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주2) OEM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3) ODM :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 위 자료는 펀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특정 시장이나 종목을 투자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 투자 기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수혜가 가능한 기업에 주목

인구구조 변화와 늘어나는 인구에 주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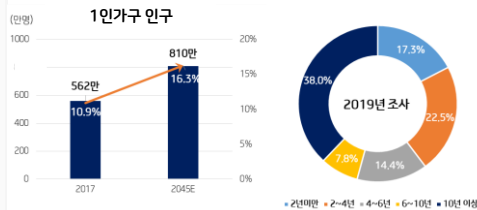
1인가구 / 노인인구 / 모바일인구의 증가에 따라 수혜 가능한 업종에 주목

1인 가구의 증가

01.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소비의 행태가 변화하면서 수혜 가능한 업종에 주목

- > 근거리 소비의 증가 → 편의점
- > 심리적 외로움 증가 → 반려동물시장
- > 콘텐츠 소비의 증가 → 콘텐츠



노인인구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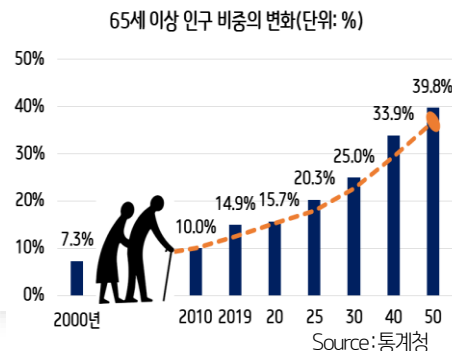
01.

노인인구의 증가에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MSCI 국가별 Health Care Weight

- World : 12.37%
- USA : 13.18%
- **Korea : 5.61%**

> MSCI Korea의 헬스케어 업종 비중은 선진국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준. 구조적 비중 확대 전망.



모바일인구의 증가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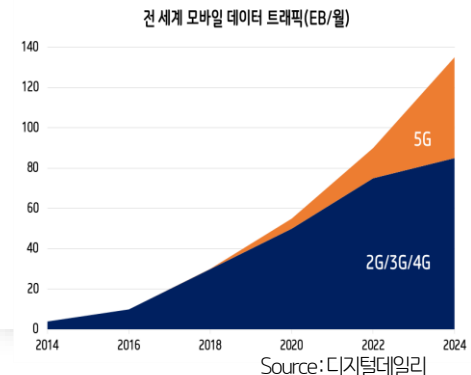
더 빠른 5G 서비스의 확대는 모바일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이어서 파생되는 다양한 산업 수요 증가에 주목

> OTT 서비스의 등장 → 콘텐츠

- Netflix, Disney+ 등의 OTT서비스 등장 확대로 콘텐츠 시장에 대한 가치 지속 상승

> 모바일 플랫폼 확대 →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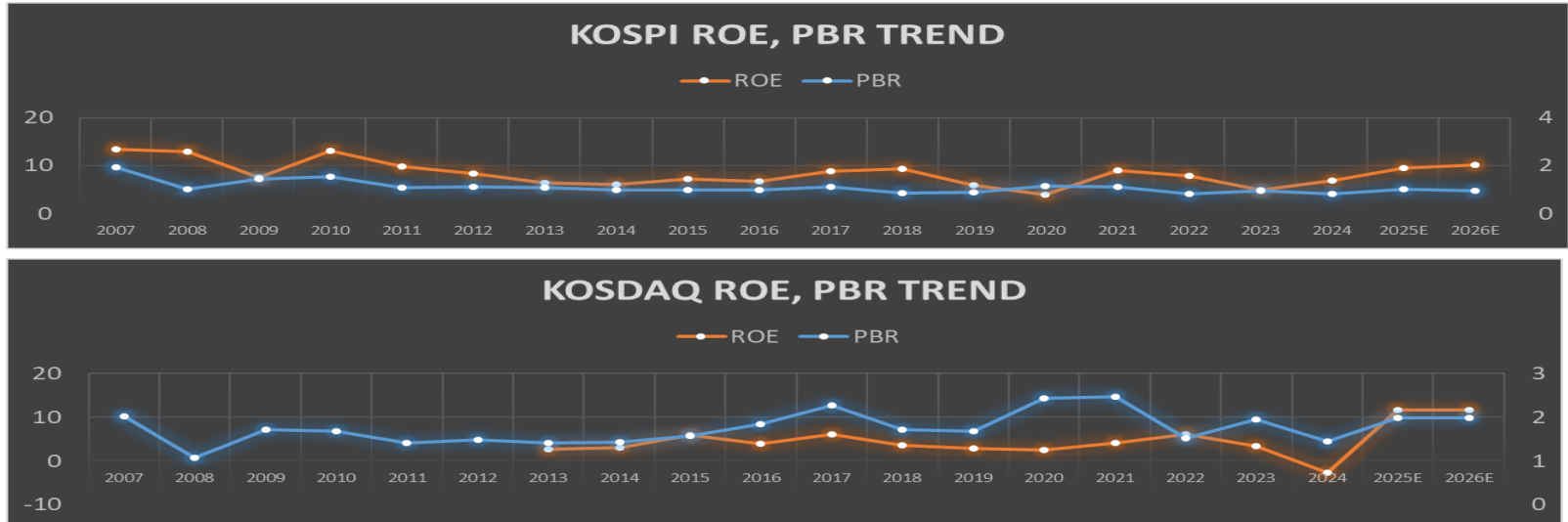
- 3G 시대의 음원 스트리밍 > 4G 시대의 비디오 스트리밍 > 5G 시대의 게임 스트리밍 확대에 따라 게임 가치 부각 전망



대한민국 Value Up Program 주목

성장하는 산업에 노출된 기업들중 ROE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PBR 낮은 기업 주목.

정부의 Value Up Program 움직임은 일회성이 아닌만큼 다수의 기업들이 저평가로 부터 해소될 전망.



기준일자: 2025.06.24, Source: Bloomberg

정부 주도의 Value Up Program에 대한 대응

정부의 구체적인 Value Up Program 시행에 따른 저평가(PBR) 기업 주목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저평가 받아왔던 국내기업들의 밸류에이션(PBR) 정상화로 보여 질 가능성 높다고 판단됨. 단, 단순 저PBR이 아닌 아래 조건들에 부합하는 섹터와 기업들 위주로 비중 확대 필요.

- 1) 미래 기업환경 및 성장하는 산업에 노출된 기업들중 순자산가치가 0.8x 미만에 거래되는 기업.
- 2) 낮은 PBR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시장 평균 이상의 ROE 내는 기업에 주목.
- 3)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가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무구조 가진 기업에 주목 (순현금 많을수록 양호)
- 4) 보유한 자회사의 합산가치 대비하여 저평가된 지주사 주목
- 5) 자사주 소각과 배당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주주의 상대적 높은 지분율 보유한 기업 주목

헤지펀드 운용역 프로필



강자인 RichTogether 국내운용본부장

2025 現) 에셋플러스자산운용 RT 국내운용본부장

2020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헤지펀드운용팀 팀장

2018 에셋플러스자산운용 국내운용팀

2014 에셋플러스자산운용 비즈모델리서치센터

2014 Deloitte Consulting Korea consultant

2013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School of Business

2013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Exchange

- 운용규모 : 공모펀드(4,436 억원), 사모펀드(472 억원)

- 사모펀드 성과 :

사모8호 운용펀드(손익차등형) : 43.83%% (설정당시 KOSPI 3,060.5, 설정일 : 2021.08.20)

사모9호 운용펀드(손익차등형) : 86.09% (설정당시 KOSPI 2,334.3, 설정일 : 2022.07.07)

사모10호 운용펀드(손익차등형) : -18.36% (설정당시 KOSPI 2,637, 설정일 : 2023.07.25)

사모11호 운용펀드(손익차등형) : 6.39% (설정당시 KOSPI 2,652, 설정일 : 2024.02.28)

사모 12호 운용펀드(손익차등형) : 43.55%(설정당시 KOSPI 2,867, 설정일 : 2024.07.09)

사모 13호 운용펀드(손익차등형) : 31.01%(설정당시 KOSPI 2,689, 설정일 : 2024.08.08)

(2025.06.20 기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 투자검토 경험을 기반

- 신재생 에너지사 모펀드 설정 경험, 수소/풍력/태양광발전소 PJT 검토 경험을 다수 보유
- 발전소PJT 검토시 경험한, 현실적 재생에너지 PJT의 효용과 성장가능 한 산업, 기업에 집중.

< 다수의 발전사 프로젝트 검토 및 실사 진행 >

01. 신안군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 [서남제일그린]

태양광발전소 설비용량 30MWh

자기자본 10%, 타인자본 90%

02. 안성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

태양광발전소 설비용량 4MWh

03. 가평에너지 ESS연계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면적 : 4,700평 [1mwh]

일사량 3.47시간

04. 홍천군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

규모 : 5MWh.

그 외 PJT 10건 이상 다수.

05. 그 외 다수 미팅 기업들

시공사 : 한화큐셀 /선우/ 에스에너지/서브원 /LS산전/LS전선

금융기관 : 삼성화재/코리아에셋 증권/신한은행

<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성 분석(예상) >

개요정보	투자정보	매출정보	투자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명: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장: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기간: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주: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비: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이익: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리스크: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효과: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환경: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조건: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절차: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결과: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정보 투자금액: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유형: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시기: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대상: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조건: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절차: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결과: 태양광 발전사업	매출정보 매출액: 태양광 발전사업 매출유형: 태양광 발전사업 매출시기: 태양광 발전사업 매출대상: 태양광 발전사업 매출조건: 태양광 발전사업 매출절차: 태양광 발전사업 매출결과: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정보 투자금액: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유형: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시기: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대상: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조건: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절차: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결과: 태양광 발전사업

2021년부터 사모펀드를 운용하면서 편입한 혁신 기업들

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국내 자주포 1등 업체로 탄약까지 내재화 하면서 리커링이 지속 발생하는 BM 보유
- 전세계적으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누적 수익률 +500% 이상 달성

현재 보유 비중 : Double Digit

현대로템

- 국내 탱크 1등 업체로 폴란드 등 다수의 국가로부터 지속적일 발주가 보여지는 상황
- 전세계 1,000조원이라는 방산 시장에서 러시아+중국으로부터 의존하던 EU국가들이 현대로템으로의 발주를 보이는 모습

현재 보유 비중 : Double Digit

네트워크 사업

Tesla

- 글로벌 1위 전기차 업체
-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한 절대 Q증가 기대
-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ASP 인상을 통한 비용 전가 긍정적

현재 보유 비중 : High Single Digit

글로벌텍스프리

- 국내 1등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자로서 향후 중국인 인바운드 증가에 따른 구조적 수혜 전망
- 회사는 추가적인 CAPEX가 제한적인만큼 매우 우량한 Free Cash Flow 모습을 보여

현재 보유 비중 : Double Digit

N2 확장 (해외로의 확장)

대웅제약

- 국내 1~2등 보툴리눔독신 업체로 K뷰티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구조적 경쟁력을 인정받는 모습
- 향후 지역 확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EPS증가를 그릴 전망

현재 보유 비중 : Double Digit

경동나비엔

- 국내 1등 보일러 업체이나 미국에서는 가스온수기로 1등 MS를 가진 기업
- 향후 미국에서 확보한 유통 채널을 통해서 HVAC 시장 등으로의 확장을 모색하는 기업

현재 보유 비중 : High Single

상위 종목들은 현재 운용중인 포트폴리오의 예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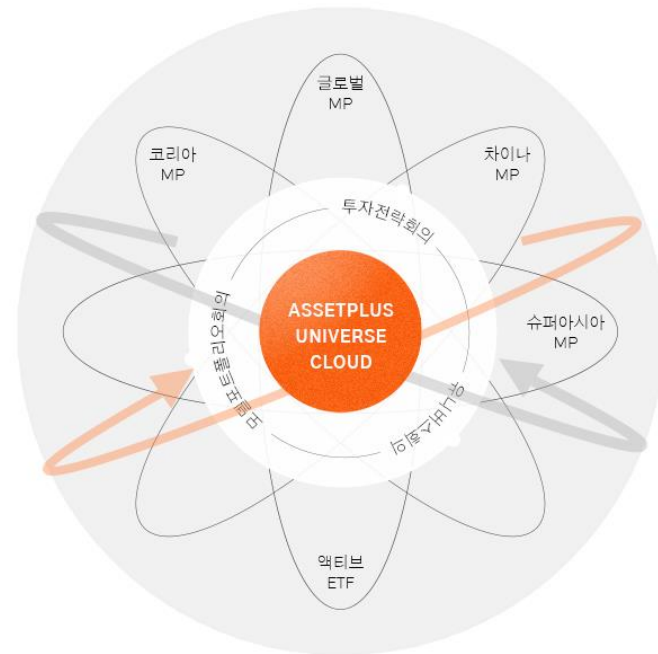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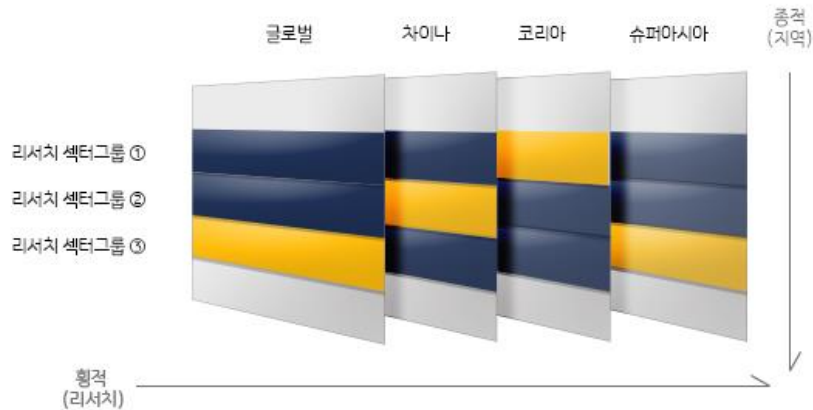
* 위 자료는 펀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특정 시장이나 종목을 투자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 투자 기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료는 작성시점에서 취득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나, 시장의 환경이나 그 외의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 의사결정 체계

-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은 팀 운용 체제를 통해 **개인의 판단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하고, 다양한 의견을 펼치도록 합니다.
- 특히, 국내운용본부·해외운용본부와 비즈니스모델리서치센터 간 **활발한 의견 교환과 토론으로 결론**을 도출합니다.

< 팀 운용 기반 Matrix 운용조직 >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예금자보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움직이는 경우 수익이 '0'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상품의 상품제안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익률은 예상수익률, 목표수익률에 불과하므로 이 수익률 혹은 운용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가격변동위험	신탁재산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해외주식시장 지분증권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신탁은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규모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거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급증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운용성과 및 가치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의 특성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개요는 상품제안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상품제안서는 판매자의 이해와 편의를 위한 것으로 만약 상품제안서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계약이 우선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증권차입 위험	<p>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따라 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 자산의 가치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Short selling)를 실행합니다. 그러나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그 자산의 가치가 예상과 달리 상승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인해 그 차액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 거래에는 담보물을 제공하게 되며 차입거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차입한 증권에 대해 대여기간 중 대여자의 환수요청이 있는 경우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재차입이 어려울 경우 차입매도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권차입 거래에 대한 규제로 차입매도가 제한될 경우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한 투자전략을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p>
과세 위험	<p>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므로 펀드 수익률과 무관하게 운용재산의 매매차익, 배당, 이자 등의 이익으로 인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3종 수익증권의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매매 이익은 회계결산 시 유보되며, 만기상환 또는 조기상환 시점에 일괄적으로 과세됩니다. 단, 만기 전 일부 분배할 경우 과세됩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 등 세법상 과세처리 되는 자산에 투자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펀드의 과표기준가격에 반영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세소득 규모에 따라서는 소득 발생의 다음 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p> <p>이 투자신탁은 손익차등형 투자신탁으로 종별 수익증권 차등분배평가손익조정금액을 집합투자기구조로부터의 이익으로 보아 실제 차등하여 지급받는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합니다. 과세위험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의 정책, 조세제도 변경 및 수익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황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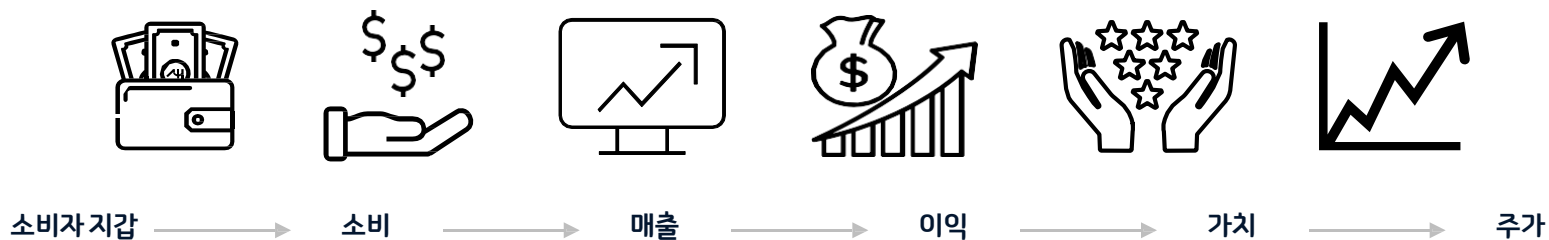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기준가격 산정 중 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1,000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환매 금지형 투자신탁으로 기준가격 산정오류가 만기 이전 운용기간 중에 발생하는 경우 당해 집합투자기구를 보유한 투자자에게 동일한 경제적 가치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평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상당기간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탁 재산의 평가가 원활이 이뤄지지 않고 상당기간 장부가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확인한 투자성고가 상당 부분 적절한 시장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일부 자산을 해외주식, 해외수익증권 에 투자하므로 관련 환율은 항상 변동될 수 있으며, 동 환율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자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위험 (Leverage Risk)	이 투자신탁은 증권 차입을 활용해 운용하므로 수행하는 운용전략에 따라 증권차입비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운용할 예정이나, 통제하기 어려운 시장위험이나 체계적 위험의 발생, 운용전략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레버리지 투자한 부문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 펀드 수익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손실로 인하여 펀드가 청산될 수 있습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 위험	이 투자신탁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공모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의 투명성을 가진 펀드입니다. 이에, 투자자는 동 투자신탁의 가격 변동 사유 또는 이상 변동 등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지하지 못한 추가적인 손실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탁회사의 신탁재산 감시 의무 면제에 따른 위험이 존재합니다.
업종집중투자 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소수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특정 업종의 성과에 따라 투자신탁의 성과가 좌우될 수 있으며, 해당 업종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서 투자목적과는 다르게 급격한 가격변동에 처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심각한 원본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새로 기업 공개가 되는 주식(이하 “공모주”라 함)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는 과거 거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 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 물량은 한정되어 있어서 동일한 거래를 하려는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모주는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의무 보유(Lock-up)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가격이 하락하여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이후 해당 공모주가 상장되기까지는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며, 해당 공모주의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동기간 이 투자신탁의 해지 등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주식의 본질에 대한 에셋플러스의 신념

에셋플러스의 투자철학은 주식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주식은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유가증권이 아니라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동반자 티켓**입니다.

주식투자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매수하는 행위로, 그 기업의 동반자로서 성장과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기업 가치는 소비자의 지갑에서 출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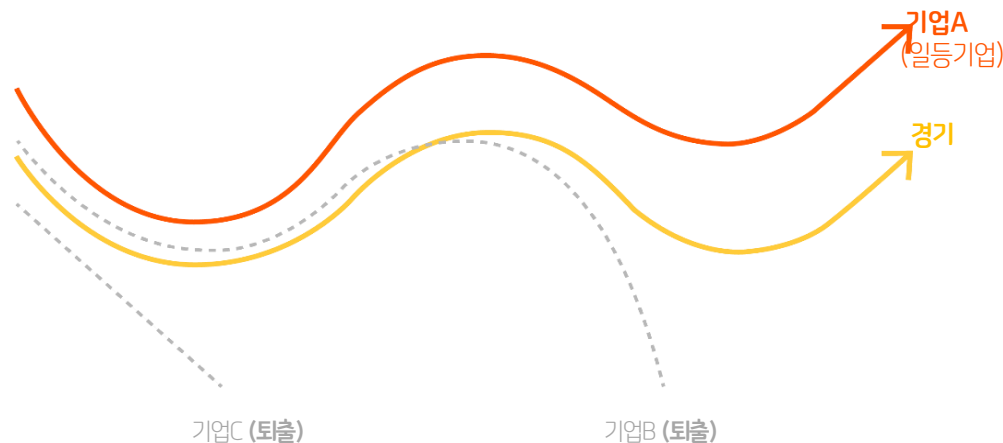
좋은 주식은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 모든 사람이 아는 상식 속에 있습니다.
에셋플러스는 소비자의 지갑에서 탄생하는 가치에 주목합니다.

에셋플러스가 정의하는 일등기업* 중심의 장기투자 원칙

세상은 늘 호황과 불황을 반복합니다. 그 속에서 오히려 불황을 즐기며 최종 승자가 될 기업이 있습니다.
에셋플러스는 이와 같은 **일등기업**을 중심으로 장기투자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등기업이란?

1. 호황과 불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구조적 경쟁력 있는 기업
2. 변화하는 미래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동적인 기업
3. $(P \times Q)$, $N1$, $N2$ 를 통제할 수 있는 강건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 (P: 가격/Q: 판매량 / N1: 사업 포트폴리오 / N2: 매출처)



일등기업의 변화 요인

기술, 제도 변화	태도, 기호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 풍력발전 • 신약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품 • 애슬레저 • 언택트
소비층 변화	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인구 • 노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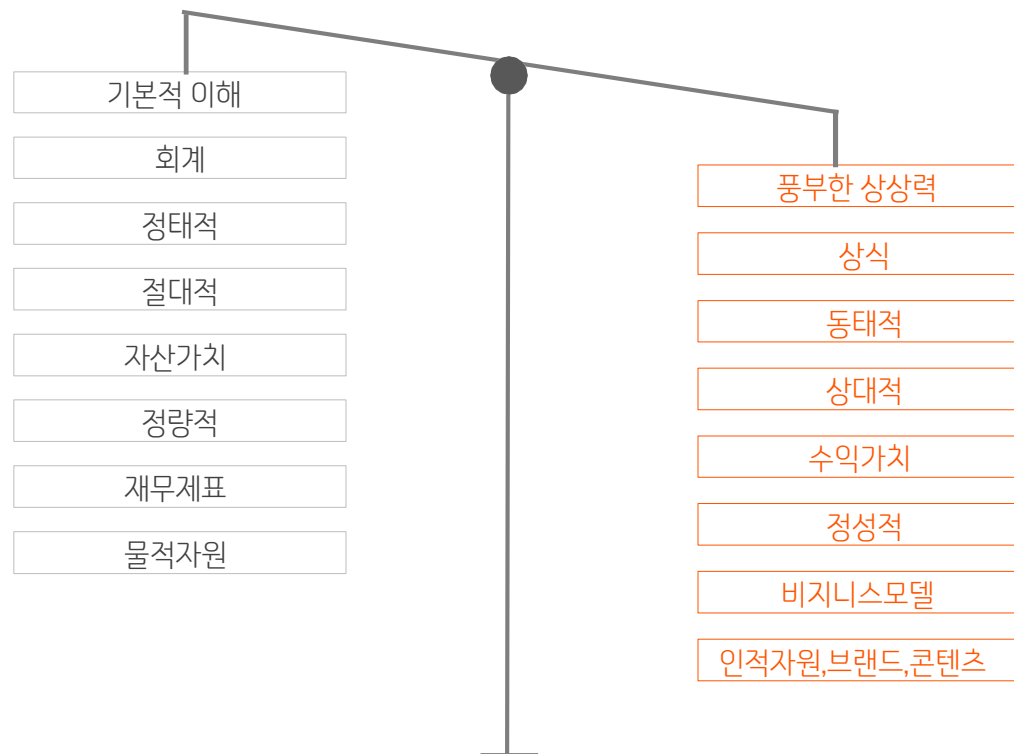
*일등기업도 변할 수 있음

* 일등기업: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내 경쟁력 높은 기업

미래 기업가치를 찾는 동태적 가치투자

에셋플러스는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풍부한 상상력**을 더해 기업가치를 판단합니다.

회계적 잣대 위에 **상식의 잣대**를, 정태적 가치 위에 **동태적 가치**를, 절대적 가치 위에 **상대적 가치**를 적용합니다.



기업 이익의 질에 주목

에셋플러스는 기업가치에 대해 체화 된 믿음이 있습니다. **가격은 가치에 의해 결정되고 가치만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가치는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에서 비롯되며, 이익을 창출해내는 **힘**과 이익의 질을 높이는 **수익가치**가 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text{주가(시가총액)} = \text{수익력(기업이익, 주주의 몫)} \times \text{이익의 질(프리미엄,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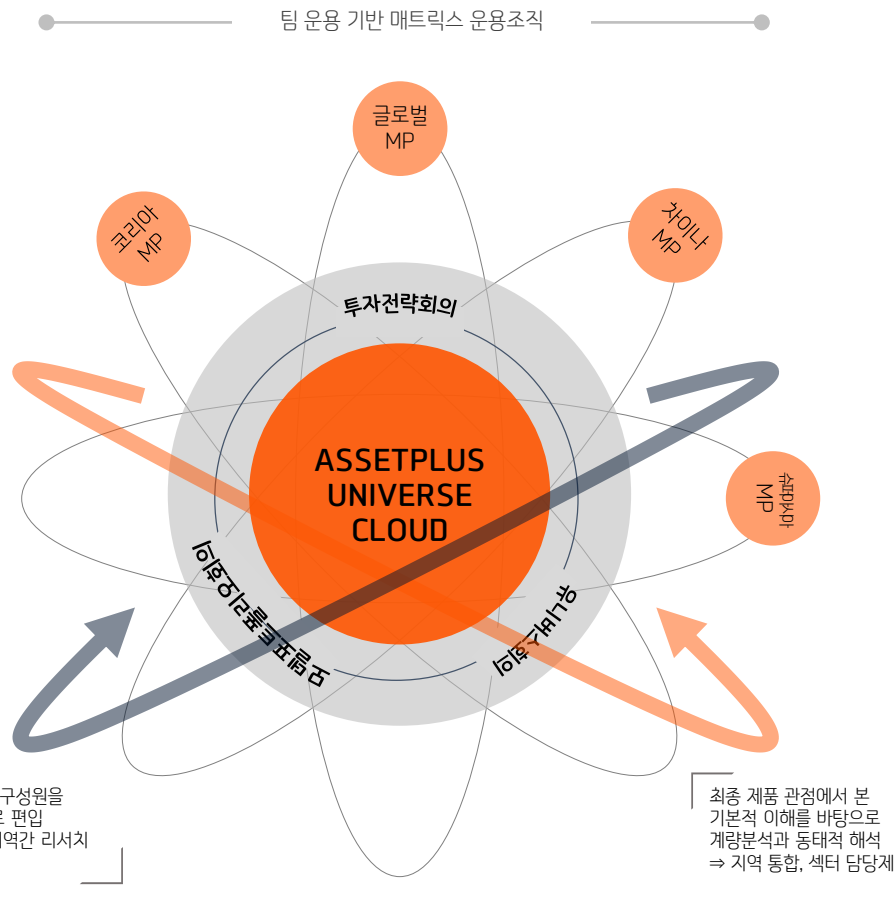


운용 프로세스

팀 운용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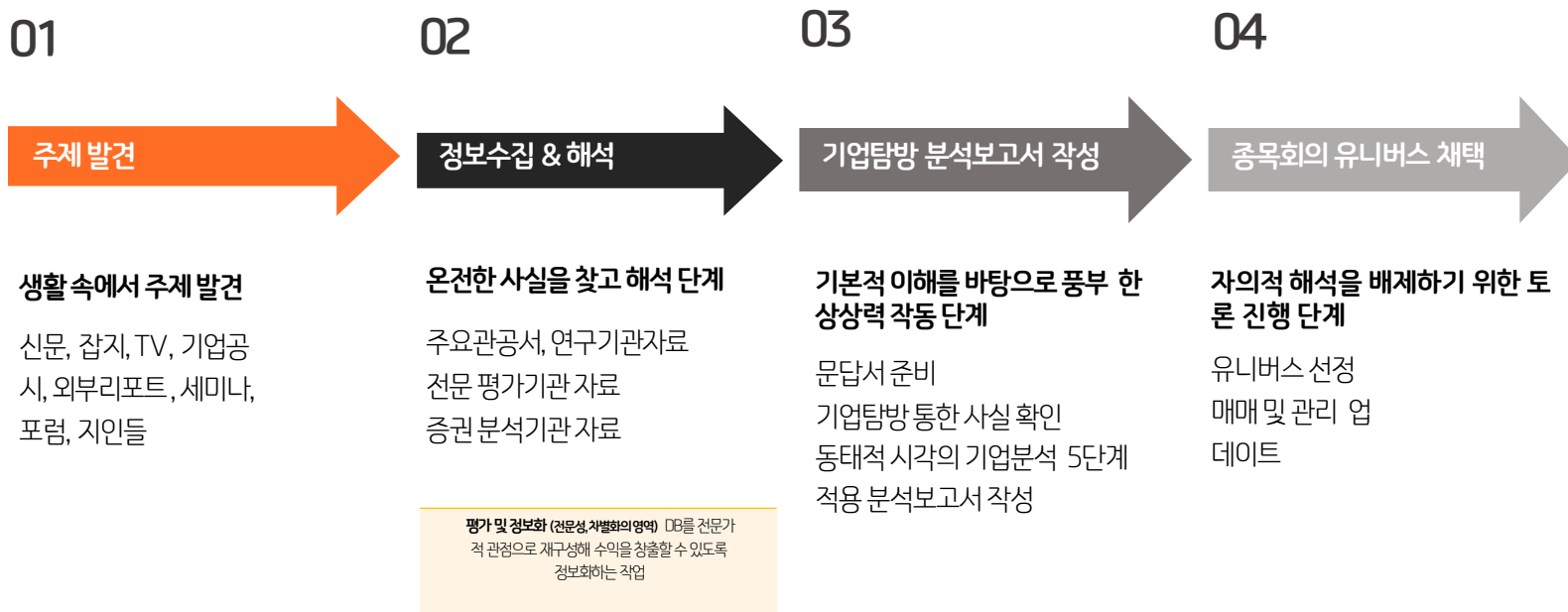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은 팀 운용 체제를 통해 **개인의 판단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하고, 다양한 의견을 펼치도록 합니다.

특히, 국내운용본부·해외운용본부와 비즈니스 모델리서치센터 간 **활발한 의견 교환과 토론으로 결론**을 도출합니다.



가치발견프로세스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누군가는 소비를 할 때, 에셋플러스는 이에 대한 끊임 없는 질문과 토론 끝에 가치를 발견합니다.



돌핀감마시스템 : 효과적인 리서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당사만의 자체 개발 시스템

내부 리서치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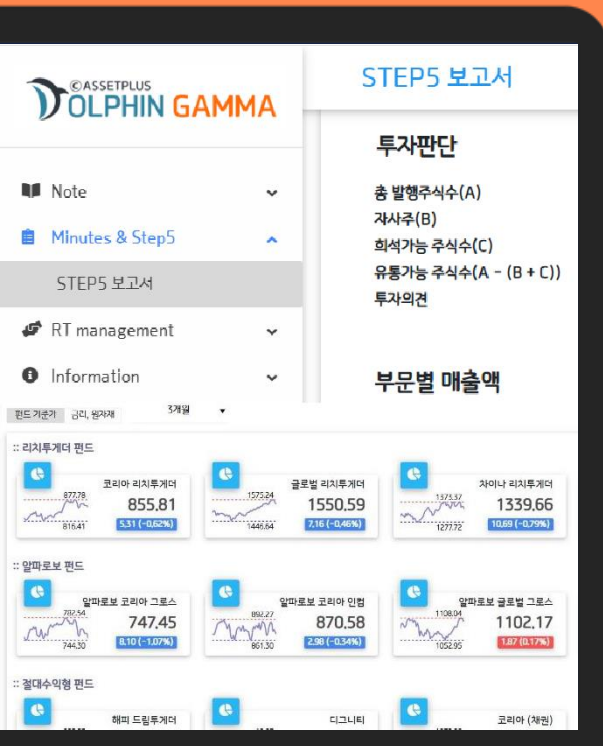
- / BMR 애널리스트가 생성한 내부 리서치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운용팀과 적극적으로 공유
- / STEP 5, 회의록 등 보관 및 공유의 어려움이 있는 자료의 DB화로 리서치 이력 관리

데이터베이스 활용

- / 데이터 Feeding으로 받은 국내·외 5,000여 개 기업의 재무 데이터(Reuters)의 종합 분석 진행
- / 내부 데이터와 결합해 자체 DB 분석 시스템 구축

포트폴리오 분석

- / 포트폴리오의 현 상황 진단과 비교지수와의 비교 분석
- / 성과분석을 통한 섹터 및 종목 비중 조정과 포트폴리오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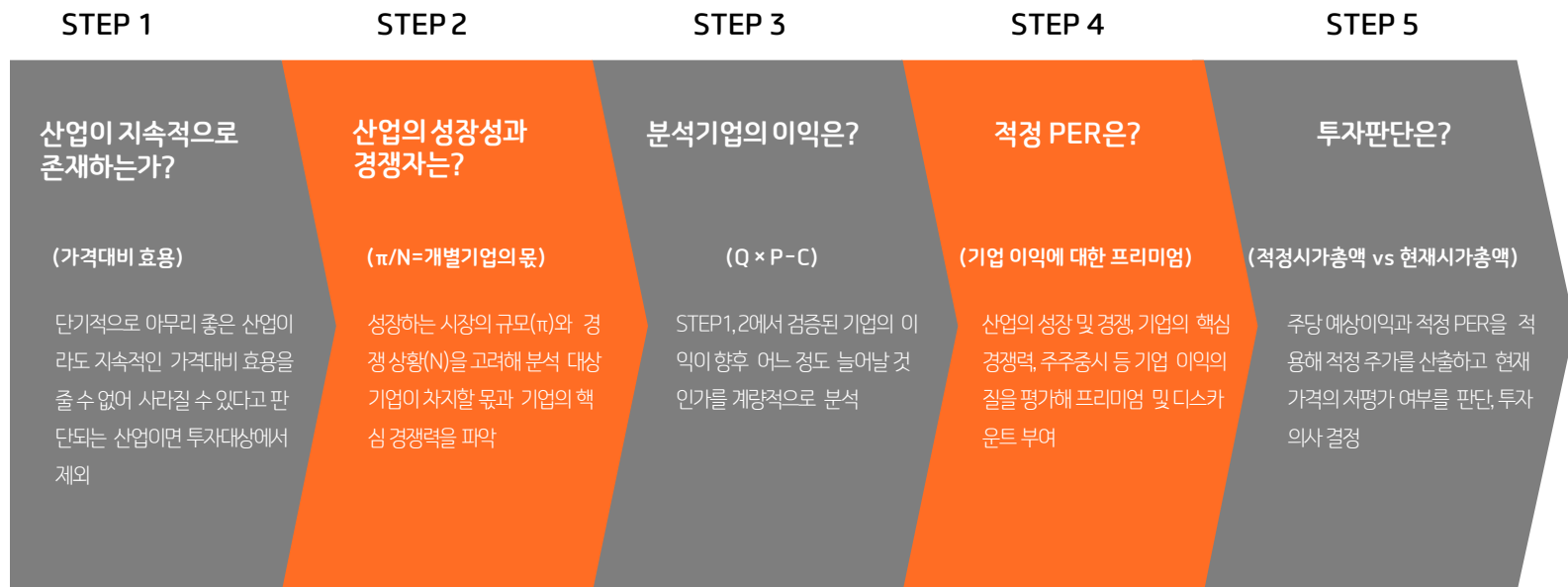


돌핀감마시스템을 통한 운용 및 리서치 시스템 체계화로 안정적인 운용 가능

가치 있는 저평가 기업을 찾아내는 기업분석 5단계 시스템

에셋플러스가 가치를 찾는 과정은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지속될 것인지, 치열한 경쟁에서 과점적 지위를 창출할 수 있을지, 경영자 자질 등 핵심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적정주가가 현재 가격보다 싼 것인지 등 다섯 단계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에셋플러스의 위험관리

위험관리는 좋은 종목 편입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가치추정 오류위험**과 **시장위험** 등에 능동적으로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치투자가 최선의 위험관리**라는 철학으로, 고객 이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 업무 FLOW

사전적 위험관리

- ✓ 내부 위험관리 규정 준수
- ✓ 계량화 가능한 체크사항의 전산화 구축 및 관리
- ✓ 상품 개발 단계부터 신규상품의 위험분석 및 관리
- ✓ 임직원 위험관리 교육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투자 위험 (Investment Risk)

- 시장 위험
- 신용 위험
- 유동성 위험
- 파생상품 위험
- 외환증권 위험

비투자 위험 (Non-Investment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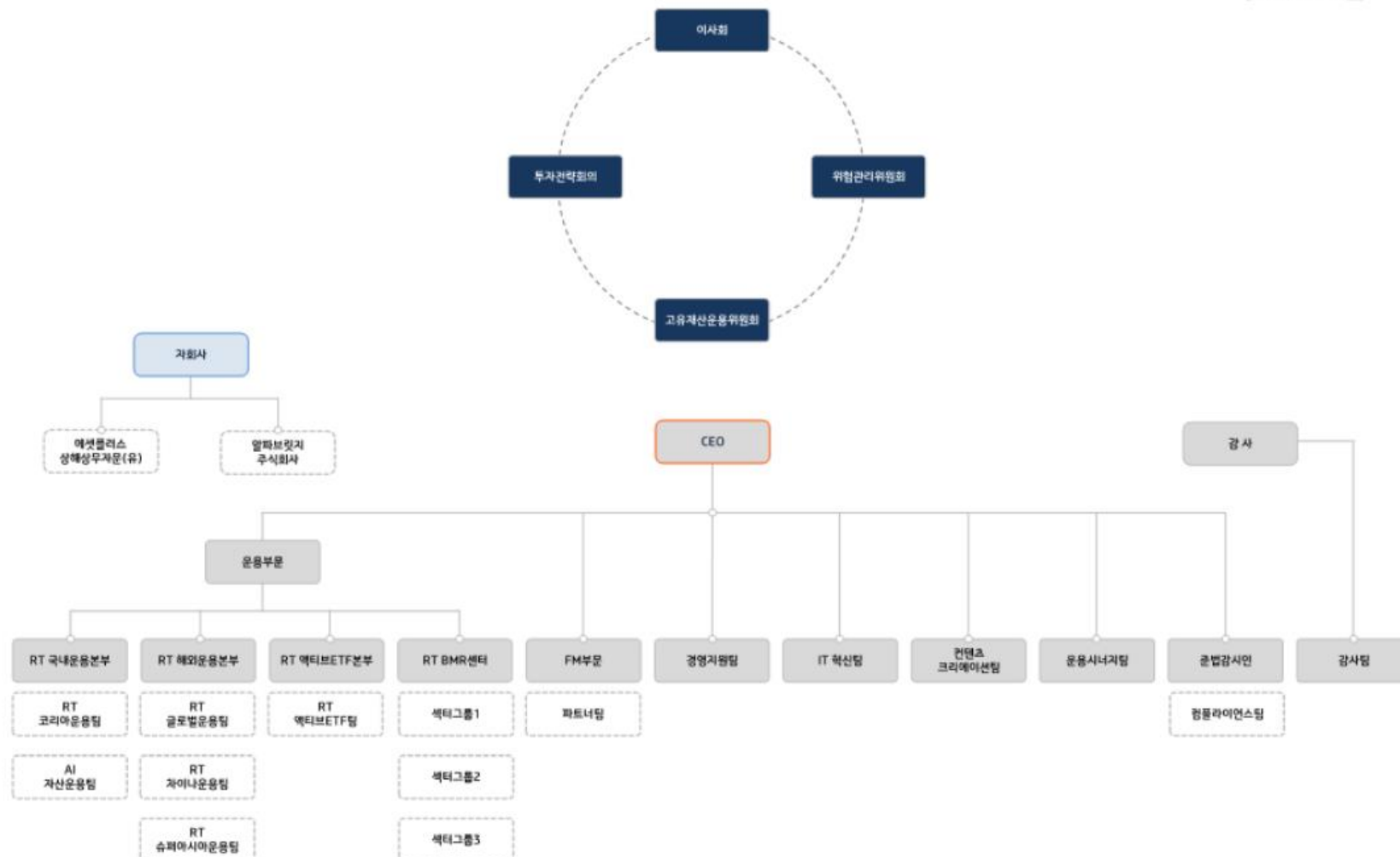
- 평판 위험
- 법적 위험
- 운영 위험
- 경영 위험

사후관리

- ✓ 법규 및 규정에 대한 위반 체크
- ✓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및 조치
- ✓ 위험관리 체계 보완 및 개선

인력 조직도

[2025.03.10 기준]





감사합니다

